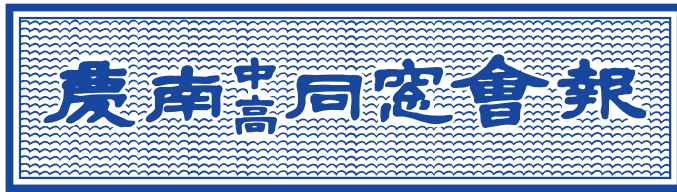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인: 오 거 든
편집 / 제작: 경남중고동창회보 편집실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 본부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O/T 411호
Tel. (051)245-7551~3 / Fax. (051)245-7550

6.25 전몰동문 2명 추가 확인

신원 확인된 동문 12명으로 늘어나

故 이성준 동문(5회) - 금화지구전투에서 전사
故 김홍엽 동문(6회) - 황성지구전투에서 전사

함께 입대했던 '동네친구' 김상엽 동문(6회)이 제보

6.25전쟁 때 해도군으로 참전했다가 전사한 우리 동문 2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신원이 확인된 6.25전몰동문은 지난 호 1면에 보도된 10명을 포함, 모두 12명으로 늘어났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6.25전몰동문 2명은 이성준 동문(5회, 금화지구전투에서 전사, 당시 계급 하사)과 김홍엽(6회, 황성지구전투 중 전사, 당시 계급 하사)동문이다.

이 사실은 김상엽 동문(6회, 부산 사하구 감천동 거주)이 지난 호(제392호) 동창회보 1면에 보도된 <6.25 때 산화한 '학도병 동문' 10명 신원 확인> 제하의 기사를 읽고 알려줌으로써 밝혀졌다.

김 동문은 "당시 나를 포함해서 감천의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우리 동문 6명(5회 2명, 6회 4명)이 함께 헌병으로 입대했는데 이 중에서 이성준 동문과 김홍엽 동문이 전사했다"고 밝혔다.

김 동문은 "김홍엽 동문은 나오는 경남중 동기이면서 사촌 간으로 함께 헌병으로 입

대했다가 나는 11사단에, 그는 8사단에 배치됐다"며 "김홍엽은 황성지구전투에서 후퇴하다가 적의 기습공격을 받고 전사했다"고 말했다. 김 동문은 "제대 후 집에 와 보니 김홍엽의 실종통지서가 와 있었다"며 "나중에 전사로 공식 처리됐다"고 밝혔다.

김 동문은 "이성준 동문은 나보다는 학년은 하나 위였으나 나이는 동갑이었고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야구를 아주 좋아했던 친구였다"며 "그는 헌병학교 졸업 후 금화지구에 주둔했던 소속 부대가 아침조회를 하던 중 기습을 당해 전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성준 동문은 '금화지구 현우회령비'에도 전사자로 이름이 새겨져 있다"며 "당시 이성준의 감천동 집에도 전사통보가 왔었다"고 말했다.

김 동문은 경남중 5학년 때인 1950년 8월 28일 자원입대, 대구 헌병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뒤 11사단에 배속돼 남원에 주둔하며 지리산공비토벌작전에 참가했다.

<관련기사 11면>

아, 세월이여... 16회 동문들, 졸업 50주년 홈커밍데이



16회 동문들이 지난 10월 12일 졸업 50주년을 맞아 모교를 찾았다. 이날 180여명의 동문들은 경남고와 경남중을 방문,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기념촬영을 했다. 16회 동기회는 이번 홈커밍데이를 맞아 졸업 30주년 때 제작·기증 했던 모교의 교문을 보수하는 한편 경남고에 5백만원, 경남중에 3백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대통령 또 배출? 동문들 기대

문재인 동문, YS 이후 대권에 가장 근접

문재인 동문(25회)이 지난 9월 16일 당내 경선을 통해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YS(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동문 대통령'이 또 나올지 여부에 우리 동문들의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 있다.

문 동문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후보단일화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동문으로서 YS 이후 대통령이 될 가능성에 가장 근접해 있는 동문이다.

지금까지 YS 외에 우리 동문으로서 대권에 도전했던 사람은 권영길 동문(15회)과 박찬종 동문(경남중12회)이 있었으나 이번 문 동문에 비하면 당선권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다.

한편 문 동문에 대한 지지여부를 놓고 동문들의 여론은 크게 양분되고 있다. 진보성향을 가진 동문들과 젊은 동문들 사이에서 "우리 동문이니 무조건 밀어서 '동문 대통

령'이 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보수성향의 동문들은 문 후보와 소속 정당의 진보적 성향에 은근히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방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창회 차원에서도 과거 YS 때처럼 적극적인 지지유치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 동문의 동기들은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문 동문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창회 사정에 밝은 한 동문은 "우리 동문들 중에 여권 국회의원이 많은 데다가 동문들이 대체로 보수성향이어서 동창회가 (문 동문 지지여부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문재인 동문.

6.25전몰동문 추모공간 승효상 동문이 설계한다

승 동문, "소박하지만 경건한 추모공간 만들 것"

모교 교정에 세워질 '6.25전몰동문 추모비'의 설계를 이룬 건축가인 승효상 동문(25회)이 맡기로 결정됐다.



승효상 동문.

승 동문은 추모비 건립을 발의해 추진해오고 있는 임우근 재경동창회장(19회)으로부터 설계제안을 받고 흔쾌히 응했다.

그는 10월 28일 동창회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장에서 산화한 우리 동문 선배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기리는 일이어서 흔쾌히 동참하기로 했다"며 "단순히 어떤 오브제를 만들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경건한 '추모 공간'을 만들어 낼 생각"이라고 설계구상을 밝혔다.

그는 곧 모교를 방문, 추모공간을 만들 장소를 찾아본 뒤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대 건축과를 졸업한 승 동문은 지난 8월 이탈리아 베니수비엔날레 건축전에 초청받는 등 세계적으로 이름난 건축가다. 그는 김해 봉화마을에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설계하기도 했다.

9~10면에 <어디서 무엇을... 미국 뉴욕, 뉴저지, 미국 동부 편>

- * "부산고-경남고 어디가 더 명문?" 네티즌 논쟁 - 3면
- * "위국헌신하는 엘리트 많이 배출해야 진짜 명문고" - 11면
- * "노무현, 요트세일 공장 차렸다가 돈만 날렸다" - 13면
- * 못 말리는 중국인들의 악습, 웨이관(圍觀) - 14면
- * 남기고 싶은 이야기 '단 한번 만나고는 사랑고백' - 15면
- * 독필잡기 '누가 낮잠 두껍고 속 검은지를 가려내야' - 17면

제44회 동창회장기 기별야구대회 폐막

장년부 33회 34회, 청년부 41회 44회 공동 우승

지난 10월 7일 개막된 제44회 동창회장기 기별야구대회가 10월 28일 오후 6시 막을 내렸다.

연합팀 포함, 총 29개 팀이 참가하여 청년부와 장년부로 나뉘어 모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이번 기별야구대회는 우승과 준우승을 가리는 마지막 경기들이 전날 내린 폭우로 취소되는 바람에 장년부의 33회, 34회와 청년부의 41회, 44회가 각기 공동우승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대회결과와 다음과 같다.

◇ 공동 준우승 = 장년부 27회, 32회 / 청년부 39회, 48회

◇ 수상자

<장년부> △최우수선수상 장정석(33회), 김태하(34회) △최우수투수상 김종욱(33회),

진양호(34회) △감투상 배기용(27회), 조준현(32회) △미기상 김규원(32회), 김중근(34회) △인기상 신화영(백수현·33회 부인) △수훈상 이제룡(27회) △감독상 김재익(33회), 이상도(34회) △타격상 조영일(27회) 6할, 공진우(33회) 6할, 손영대(33회) 5할7푼리

<청년부> △최우수선수상 서상대(41회), 권상근(44회) △최우수투수상 이주하(41회), 석상봉(44회) △감투상 이상기(39회), 이동준(48회) △미기상 김성일(41회), 이재기(44회) △인기상 김중우(48회) △수훈상 이승기(39회) △감독상 정채철(41회), 안병규(44회) △타격상 배종세(44회) 8할7푼5리, 안승진(39회) 6할2푼5리, 강훈(41회) 5할8푼3리

매출기준 1천대 상장기업 CEO 출신고 조사했더니...

경남고 출신은 22명, 부산고 18명, 마산고 13명 순 경기고가 70명으로 CEO 가장 많이 배출

국내 매출 기준 1천 대 상장기업의 CEO 9백64명 가운데 경남고 출신이 22명(2.3%)으로 경남고가 전국 고교 중에서 6번째로 CEO를 많이 배출한 고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분석 전문업체인 한국CXO연구소(소장 오일선)가 지난 10월 17일 발표한 '국내

매출 기준 1천 대 상장기업 CEO 출신 고교 현황분석'에 따르면 가장 많은 수의 CEO를 배출한 학교는 경기고로 70명이었다.

부산고는 18명(1.9%)으로 8위를 차지했고 마산고가 13명(1.3%)으로 10위를, 동아고는 1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덕경회, 친선골프 및 정기모임 가져

덕경회(회장 송규정, 16회)는 지난 10월 4일 동래 베네스트C.C에서 8개조 32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 친선 골프대회를 가졌다.

이어 골프장 클럽하우스 옆 야외 잔디밭

에서 만찬을 겸한 정기모임을 가졌다.

주요 참석자는 송규정 회장, 이용흠 고문, 오거돈 본부 동창회장, 임우근 재경회장, 허범도 본부 수석부회장, 구자신 쿠쿠홈시스(주) 회장 등이었다.

불자동문들, '경불회' 창립 예비모임 갖는다

11월 23일 구도회 법당에서, 동문들 참석 환영

경남중고 동문 불자회(경불회) 창립을 위한 예비모임이 오는 11월 23일(금) 오후 6시 구도회 법당(부산진역 맞은편 한정선과의원 4층)에서 열린다.

경불회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장은 정영

천 동문(21회)이 추대됐고 준비위원으로는 월봉스님(6회) 등 20명이 선임됐다.

준비위원은 불교에 뜻있는 동문님들이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연락 = 010-4857-0573 서정환(28회)

부·울·경 언론인 정기모임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전·현직 언론인 동문들의 친선모임인 용마연륜인클럽(회장 이만수, 28회) 정기모임이 지난 10월 30일 오후 7시 해운대구 '일품한우'에서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오거돈 본부 동창회장이 참석, 격려했고 장인화 동문(35회·동일철강 회장)이 경비 협찬을 했다.

고 이태석 동문 묘소에서 '눈물의 연주'

톤즈 브라스밴드 방한, "쫄리 신부님 들리시나요?"



고 이태석 동문의 묘소를 찾은 톤즈 브라스밴드 단원들. <사진=중앙일보>

지난 10월 14일 오후 담양 천주교공원묘원.

이곳에 있는 고 이태석 동문(35회, 신부의 묘소에 29명의 흑인 소년 소녀로 구성된 브라스밴드 단원들이 빙 둘러섰다. 이들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고향의 봄'과 성가곡 다섯 곡을 연주한 뒤 무뎀 주변에 주저앉아 소리 내 흐느꼈다.

이들은 고 이 동문이 생전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에서 직접 가르친 '톤즈 브라스밴드'의 단원들. 이들은 3년 전 이 동문이 암 치료를 위해 귀국할 때 이 동문을 마지막으로 봤다. 그리고 2년 전 이

동문의 갑작스런 죽음을 전해 들었다.

이들은 지난 13일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에 초청을 받아 한국에 왔다. 이들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 동문이 선종 직전까지 부병하던 앙팡수도원을 방문했고 이어 이날 그토록 그리던 '파더 쫄리'(고 이태석 신부를 그들은 이렇게 부른다)의 묘지를 찾아 '진혼의 연주회'를 가진 것이다.

이들은 이어 15일에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만찬에서 연주를 하는 등 일정을 소화하고 남수단 톤즈마을로 돌아갔다.

이용흠 동문, '부산 오페라하우스 설계공모'에서 당선

노르웨이 스노헤타社와 공동 제출한 작품으로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부산 오페라하우스 국제지명초청 설계공모에서 이용흠 동문(19회, 일신설계 대표)이 노르웨이 설계사무소 스노헤타社와 공동으로 제출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뽑혔다.

부산시는 지난 10월 11일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공개심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1차 공모전을 통과한 5개 팀과 오페라하우스 전문 건축가 5개 팀 등 총 10개 팀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부산오페라하우스 설계 당선작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시민을 위한 공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땅이 솟아오른 것처럼 지붕과 땅이 연결돼 있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밖에서 자연스럽게 지붕으로 걸어 올라가 북방



부산 오페라하우스 설계당선작 조감도. 지붕을 조망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일대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지붕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해 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

부산오페라하우스는 1천8백석 규모의 오페라 전용극장 등의 시설을 갖춰 북항 재개발지역 해양문화지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시관계자는 부산 오페라하우스가 완공되면 한국은 물론이고 동남아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동문은 부산 벅스코, 부산시청사, 부산시립미술관, 누리마루APEC하우스 등 부산의 기념비적 건축물들을 설계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번 대선은 경남고 vs 부산고’

언론들, ‘자존심 대결’이라며 양교 동문들 자극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경남고 출신이고 안철수 후보가 부산고 출신인 것을 두고 일부 언론들이 ‘이번 대선은 경남고 대 부산고의 대결’이라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언론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산의 양대 명문고가 들쭉이기 시작했다” “두 학교 동문들이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다”는 식으로 양교 동문들 간의 싸움을 은근히 부추기고 있다.

채널A는 지난 9월 30일 방송에서 문 후보와 동기인 한 동문이 “경고 동기들을 보니

까 그래도 우짜겠노 나오면 찍어줘야지 이려더라고요. 큰 돈이 아니지만 후원을 많이 하더라고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이어 “부산고 동문들은 ‘YS의 경남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에 이어 이번엔 부산고 차례’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부산의 국제신문은 지난 9월 10일자에서 ‘라이벌 부산고 -경남고, 대통령 만들기 경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교 동창회가 뜻밖에 조율하다. 하지만 대선분위기가 달아오르면 동문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티즌들, 경남고 부산고 어디가 더 명문? 논쟁

“부산고 선배들은 돈 모아 9층 건물을 짝~ 엘리베이터를 짝~” “평준화 전에는 경남고가 부산경남에서 원탑 중의 원탑”

스포츠동아가 운영하는 한 웹카페에서 부산고와 경남고 중에서 어느 학교가 더 명문고인가를 놓고 네티즌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롯데v3’라는 필명을 가진 한 네티즌이 지난 10월 26일 밤 이 카페에 ‘부산고, 경남고 중 어디가 제일 명문일까요?’라는 제목으로 “어디가 제일 명문이라고 보세요?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죠. 이번 대선도 이 학교의 대결을 가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부산고 나오셨고 작은 할아버지는 경남고 나오셨죠. 부산고는 인철수, 경남고는 문재인이죠. 어디가 제일 명문이죠?”라고 물었다.

이 글은 하루만에 532명이 조회했고 답글이 잇달았다.

- 다음은 네티즌들이 올린 답글.
- 맥스페인 = 경남고
- GG_- = 경고...
- M조던 = 경남고조
- 92년염종석 = 경남고가 약간 더 나아요
- M조던 = 경기 경남 경북 이게 비평준화 시절에 쓰리톱이었고 그뒤를 부산고 중앙고 제물포 고 광주일고 경북고 등이 뒤따랐죠.
- 역전만리런 = 경남고가 야구도 더 명문
- 달경달경 = ㅎㅎㅎ 이게 참 거시기 한게.. 부산고는 지들이 최고!! 경남고는 또 지들이 최고!! 이러한 판국이라서... 그런데... 여러가지 따져보면... 경남고가 약간더

명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현재는 두 학교 다 학군이 그다 좋지 않아서 부산 남쪽의 신흥 명문들한테 상대가 안되고 있지만요.

- 천국의열쇠 = 경고조
- 死무만 = 이젠 경남고 압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 맥스페인 = 비평준화시절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경남고는 원탑중에 원탑임
- 死무만 = 웃긴 건 경남고-경기고 전학간 사례들도 같은 학맥으로 쳐줌 ㅋㅋ
- 네임올입 = 경기 경남 경북이 쓰리톱은 아니었을 거 같은데요. 서울 삼대 명문 중에 보통 경기>서울>경북 순으로 치는 걸로 아는데 경기 경남 서울이 되든 경기 서울 경남이 되든 경기 서울 경북이 되든 서울고 없이 경북고가 끼진 못할 듯 합니다.
- 구명난 대갈빡 = 경남고가 원탑이라고 하지만 부산고도 무시할 수준은 아님. 선배들이 돈 모아서 9층짜리 건물을 짝~~~ 엘리베이터를 짝~~~~
- 92년염종석 = 경기고가 원탑이고 나머지 서울고, 경북고, 경남고 다 비슷비슷했어
- 死무만 = 경남중, 고 한발만 걸쳐도 같은 학맥으로 치더군요. 이번에 경남중 개축 때문에 말이 많은데 150억 추정예산 중 109억을 한번에 몰아줘서 경남중 천지개벽 했죠 예전 지하매점 생각하면 땅굴 같은 곳이었는데...

‘2012년 용마의 밤’ 총연출 맡은 이운택 동문(25회)

“선후배가 하나 되는 가슴 뿌듯한 무대가 될 겁니다”

“이번 용마의 밤은 만남과 소통을 컨셉으로 해서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세계적인 무대연출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이운택 동문(25회)은 오는 12월 27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릴 ‘2012년도 용마의 밤’에 펼쳐 보일 무대의 컨셉을 ‘만남과 소통’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동문은 지난 2010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용마의 밤을 총연출하게 된다.

- 이번 무대는 2010년도와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
“2010년도에는 모교의 상징인 원형교사와 용마를 내세운 비주요한 무대로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고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데 주요 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비주요보다는 퍼포먼스 위주의 무대로 끌고 가려고 한다.”

- 퍼포먼스라면?
“각 분야에서 모교의 이름을 빛 낸 동문들을 불러내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선배와 후배가 하나가 되는 무대를 만들려고 한다.”

그는 “갈수록 선후배의식이 희석돼가고 있는데, 그게 문제”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모든 동문이 소통해서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갖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거나 하고 있는 동문들을 불러내야 하는데 사람쉽외가 걱정”이라며 “총동문회에서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동문은 항상 바쁘다. 일년내내 연속적으로 연극무대를 만들고 해외공연도 잦기 때문이다. 지난번 남미 볼리비아에 연극공연을 한 데 이어 10월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유럽 루마니아에서 연극공연을 있다. 루마니아 출신 극작가 이오네스쿠가 쓴 ‘수업’이라는 연극인데 “이오네스쿠가 태어난 나라에 이오네스쿠의 연극을 들고 한국인이 쳐들어 가는 셈”이라며 웃었다.

이렇게 바쁜 그가 ‘용마의 밤’을 또 맡아서 총연출하는 것에 대해 그는 “알다시피 나의 최종 학력이 경남고다. 그래서 모교에 대한 애정 하나는 누구보다 강하다. 우리 동문들과 2년만에 만나는 ‘용마의 밤’인데 내가 당연히 나서서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운택 동문.

故 최동원 동상건립, ‘최동원 투수상’ 제정

기념사업회, 부산시민 상대로 8억 모금운동 전개

‘무쇠팔’ 투수 고(故) 최동원 동문(31회)을 기리는 기념사업을 위해 부산에서 범시민 모금운동이 전개된다.

사단법인 고 최동원 기념사업회(이사장 권기우)는 11월부터 내년 9월30일까지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8억원을 목표로 모금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기념사업회 측은 기금이 모아지면 최동원 동상 건립과 최동원 투수상 제정을 추진

할 예정이다. 동상 건립 장소는 부산 야구의 메카인 사직야구장 앞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최동원 투수상’은 매년 최동원 정신에 맞는 투수를 선정해 수여할 방침이다.

모금운동은 독지가의 기탁과 기념품 판매 등의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기념사업회측은 설명했다.

‘부산시 고교 동창회 연합회’ 정기모임

부산지역 남자고교 동창회의 전·현직 회장들의 친선모임인 ‘부산시 고교 동창회 연합회’(총회장 이용홍 경남고 동창회 고문)는 지난 10월 16일 저녁 광안리 아쿠아펠리스호텔에서 정기모임을 열고 각 동창회의 현안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을 했다.

이날 모임에는 초청인사로 진주고 김성

태 동창회장도 참석했다. 연합회는 회원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마산고, 용마고(옛 마산상고), 울산 학생고 동창회장도 초청하기로 했다. 한편 연합회는 오는 11월 23일 여고연합회와 합동회의를 열 계획이다.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구독료(년 3만원)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로 회보를 제작, 우편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료 보내주실 계좌 안내>

부산은행 028-01-032909-1 예금주 경남중고동창회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해도 됩니다)

반빙일 배병한 배성안 배준식 배호원 배준영 박봉주 변대석 변종호 변희규 부근시 부창진 순병을 손운섭 송갑영 송기영 송승훈 송현준 심재복 안계환 안동진 안영우 안진환 안홍철 엄남기 여찬기 오세길 오태호 이인주 오재택 윤성복 윤한복 이영삼 이병우 이상철 이병우 이상철 이병우 이준재 이정식 이철을 이지백 이철이 이동민 임종수 장광훈 장무성 장성택 장성복 장영근 전길홍 정남식 정대섭 정상우 정원진 정진식 정해진 전민수 조동훈 조순태 조규진 조홍기 주성민 주우실 최광용 최형민 최호필 하성일 하현성 한경규 한근택 한태길 한영우 허법도 홍순욱 이승조 허 은홍대규

23회(122명) 김인홍 강구현 강창호 고홍석 곽상인 구영수 구자섭 권오승 김건일 김동욱 김상영 김상태 김상현 김상호 김석환 김영기 김영목 김영철 김영태 김영화 김윤곤 김원정 김익근 김장섭 김재복 김정복 김정한 김종배 김종훈 김주찬 김종광 김지태 김태성 김태홍 김태성 김태홍 남상룡 노영배 문규철 문명욱 문창호 박광규 박기욱 박동현 박석근 박수갑 박근권 박재환 박종만 박정훈 박철병 배준석 배준성 백창영 서영수 서한현 손근식 송은기 송홍송 신동규 신재철 안범두 안병근 안병을 안피진 양희태 옥지범 원인근 유봉희 유석신 유원형 유진무 유순현 윤영철 유중환 이강식 이홍수 이문희 이병찬 이상필 이수백 이상수 이상은 이상우 이영재 이영환 이윤석 이일원 이정욱 이종을 이종덕 이종호 장기원 장대익 장동국 전상태 전영호 전원익 전재홍 정귀철 정기웅 정동일 정산근 정용호 정희원 조완재 조장광 조재진 조장민 조한용 재행을 최영목 최은식 최인표 최준홍 최태인 하길용 하승운 한윤길 허거홍 허병상 **윤순현**

24회(134명) 강동우 강영창 강정은 강창덕 강철홍 공문수 공성철 구본열 구자용 과두희 권해영 김경남 김경석 김경호 김동은 김동진 김민복 김명배 김무성 김병수 김봉용 김성득 김성택 김영만 김영민 김영범 김영수 김영식 김영철 김우중 김윤섭 김우신 김유수 김진구 김진철 김경안 김중환 김진은 김학성 김한근 김현태 남창영 노상우 박근철 박병철 박성보 박영근 박정문 박창중 박창호 박태식 변용준 변규진 변경우 배준갑 배성제 서순상 서정태 서정석 서명식 서정용 서정영 손종식 손찬호 송승진 송순철 송민호 송태근 신병식 신병현 신장우 안상수 안태인 안형모 안형수 양희복 여옥주 여철우 윤지현 원동희 이기원 이대진 이명백 이상찬 이상학 이우 이우희 이재능 이재성 이창무 이현영 이효구 임덕철 임민호 임철호 장성기 장세호 장현준 전대현 전상현 전운우 정광윤 정기호 정동수 정명근 정무열 정봉화 정수철 정영석 정철화 조병제 조영수 조윤근 조용화 조재진 조태홍 주경우 진병진 차동렬 차문곤 차현영 최원우 최원주 최진우 최현규 태정일 하재갑 한상필 한승철 허근현 홍윤기 황성동 황성훈 황장수 **전운우 정두문**

25회(110명) 강용주 고명식 구도원 권수갑 권태용 김건우 김경환 김구와 김국진 김남일 김태현 김덕우 김동식 김동진 김병철 김성결 김상수 김성환 김수근 김수통 김수석 김옥근 김옥철 김용경 김윤범 김우형 김재홍 김정학 김중욱 김중만 김중은 김준현 김진철 김진규 박거환 박근수 박광용 박동근 박광우 박세철 박원규 박인국 박인준 박우성 박준천 박현구 박호철 박홍기 배동명 백승익 백영근 서병수 서보민 서인진 서재구 석창재 성대기 손국영 손 원 손지용 송기현 송영근 송영기 승효상 안희석 어수훈 오양득 우진태 윤근기 윤희대 이근만 이영주 이상우 이동익 이병철 이인호 이석희 이영규 이창훈 이신택 장대락 전삼태 정신배 정철수 제영성 조대우 조광제 조양제 조익주재길 진이철 최봉하 최봉덕 최영관 탁준길 태명산 한준석 황근태 허영형 허택

26회(123명) 강도식 강맹원 강용수 고석훈 고후영 권영인 권해국 김영이 김기성 김기태 김기표 김대규 김두현 김민석 김사식 김상현 김영섭 김영철 김원정 김윤철 김재용 김중배 김중우 김주병 김창호 김철원 김태규 김태근 김 형 김형국 김효호 김희규 남인희 노영석 민성욱 박경재 박남식 박능출 박대철 박동주 박두식 박상호 박원석 박원석 박지영 박재우 박재홍 박준호 박태룡 방홍기 배갑삼 배용호 백문현 서기서 서지호 서현수 성병운 성제업 성제일 손옥호

신기용 신동훈 신재호 심승택 안길주 양국명 양준영 왕정일 왕효석 유근욱 유영진 유경일 유수현 유승용 윤희석 이경호 이규생 이규용 이기주 이동익 이병진 이상원 이상구 이상근 이순철 이승무 이상준 이상수 이상근 이현성 이재복 이재하 이재용 이재홍 이철하 이철호 이준희 정대근 정영문 정윤철 정교익 정태현 장경재 장만국 장인철 장희석 조만석 조일제 조태용 차인식 최성락 최영선 최의수 최창호 하성봉 하원규 하주곤 한창학 현동우 홍순하 홍형택 황광수 **박상호 윤경일**

27회(86명) 강봉호 강용병 강태영 공민배 김경종 김경진 김근우 김명기 김병용 김병철 김상만 김안식 김영삼 김우진 김원보 김원용 김중도 김준기 김지연 김진명 김태우 김태은 김 철 김철수 김학희 김효근 김홍근 김향원 김훈택 나찬희 류재길 문규상 문두환 문성기 박규욱 박병주 박순준 박영빈 박완기 박정민 박중국 박치호 배호택 손정식 신한원 안중택 양태중 오홍환 유성모 유영상 윤모성 윤문태 윤일근 윤종택 윤지환 이광남 이민부 이상용 이상득 이요섭 이원철 이원호 이인규 이종찬 이현식 이 현 이형택 장인철 장찬주 전태현 전 풍 정상근 전재호 정정철 정철길 조명진 조봉근 조용수 최용수 최용호 최휴진 하정우 한상훈 한수길 허봉호 황지명 **유성모**

28회(104명) 강현인 고성환 구영소 권기택 권수원 권태세 김관세 김남규 김대생 김도현 김동수 김만중 김명철 김부은 김영철 김홍석 김홍섭 김웅원 김준배 김준연 김창중 김철수 김태완

최명룡 최범수 최정만 최종열 하현태 한만수 한승경 한승동 허광욱 현재성 황유명 **30회(124명)** 강 석 강석철 구교익 구을석 권용택 김기섭 김기업 김백수 김성복 김성은 김수호 김승대 김영욱 김영일 김영춘 김용한 김욱성 김유기 김진식 김지수 김재일 김중용 김중진 김중휘 김진권 김진영 김해근 김현태 남영호 노동준 노문석 마창수 박규완 박관식 박병규 박성태 박웅석 박원호 박은수 박일균 박재백 박정국 박정락 박재홍 박진명 박진수 박희관 배경호 배승한 백기인 변윤수 서강태 서민석 서복현 서하수 석대식 석희원 송철수 신규근 신도현 신영주 신인기 서장택 심봉수 안종화 양문섭 옥유진 유영록 유재일 윤대민 윤중순 이기환 이봉근 이상필 이상구 이상기 이상조 이상수 이상영 이재봉 이중욱 이중천 이중훈 이진걸 이태봉 이한수 이환기 인준순 장호영 장홍상 전경태 전동훈 전은석 정경목 정광택 정규홍 정기룡 정부광 정성현 정승태 정영호 정재하 정태환 정태호 정해서 조봉제 조순영 조승환 조용업 진인태 차원주 채영재 최거훈 최규정 최석필 최영규 최원수 최인근 최진근 최진규 최규양 하영동 하영재 황철민 **김종휘**

31회(93명) 고영호 공종렬 권해철 김 만 김문기 김성구 김영원 김영철 김영학 김의석 김정택 김중호 김태근 김태주 김현주 김현을 김호성 김효연 남기태 노호환 류명석 문성일 민중현 박경수 박덕중 박석두 박용근 박인정 박종호 박준석 박창기 박춘열 박희임 배정우 서동균 서정호 서태고 서낙형 성탁순 성보경 손영태 신상하 신성수

김상환 김종명 김중식 김중영 김중근 김중훈 김태원 김태하 김희영 노승환 노인선 박기훈 박민수 박철호 서원혁 양철용 오상민 오승태 육재명 이은수 이재환 이재욱 이진호 장정명 정도희 정하태 조문규 조 선 조시형 홍승철 하필환 황병수 황용승

35회(35명) 김관우 김동일 김세정 김재제 김우경 김우신 김태근 김홍근 김환성 나눔용 류인수 박세종 박외명 박창석 성장용 송진태 안종업 오시원 이기서 이남기 이동형 이성환 이창성 장인희 전성용 정문준 정지환 조권재 조홍섭 차인석 차현석 최근식 최기봉 홍규삼 황용순

36회(47명) 강병주 강현철 권일복 김근수 김덕환 김병주 김성복 김영훈 김용진 김재일 김중일 김중일 김진우 김철원 김현호 김희환 남우진 문웅민 박영준 박영찬 박용철 박철중 방진영 신용택 안영호 양석용 윤용수 이동희 이석호 이우수 이원석 이정영 이종국 임서용 임창의 임창섭 정인식 장현준 정홍원 제갈재환 지동섭 최승호 최필선 최필주 하재철 허 준 홍의창 **김종일**

37회(35명) 강태우 권기원 김성현 김명근 김영광 김영태 김원범 김중휘 김준우 김태중 김형기 노기태 문진형 박기배 박진호 박익관 석영태 성창수 안용범 양귀수 유호섭 이상백 이용한 이중고 전진수 조상현 조성각 조영규 조현철 체일권 최재형 최현승 허부남 홍병일 황대운

38회(23명) 권두성 김성철 김중현 김중진 김관준 김현민 노광택 문귀상 류인식 박인철 박준표 서구일 안길수 윤경만 윤순준 이상호 정인철 정준기 조석태 조승용 조용철 차성철 최휴경 **39회(38명)** 김승우 김철원 김성홍 김중성 김원술 김형보 김희영 문기호 박근태 박순근 박인석 박종국 박준근 배효민 성경진 손석호 안승진 안영준 오민구 오민준 윤동배 윤동우 이배근 이상태 이준영 이진호 이창훈 임성우 장윤석 장도연 정우영 정의창 정진태 조규몽 진조석 최보식 천을준 허규기

40회(32명) 강순석 김경환 김병기 김성진 김영진 김원주 김정현 김희성 나수민 문태영 문형욱 박무성 박상범 박영권 박효석 배병준 배영진 배윤섭 심 철 양영렬 옥진형 우영환 이 기 이상철 이영철 이상삼 임태영 장병재 최경진 최태훈 한시용 황창수 **41회(28명)** 강구현 강석희 김범섭 김봉준 김형철 박정의 성찬기 송인환 안광근 양택모 윤광희 윤성보 임석희 이경호 이병재 이영걸 이윤석 이종민 이병호 장은호 정동문 조석우 전성원 하경은 한창호 허준희 허치호 홍서우

42회(13명) 권영태 김규식 김대규 김정연 남하정 박옥식 백영환 서정호 신동복 유기만 이동현 정홍준 제정환

43회(15명) 강홍준 김경훈 김기봉 김진수 박진형 박태근 송대성 이강수 이상민 이승택 이용삼 정동수 정용준 차중호 황민철

44회(17명) 고보진 김동욱 김지근 남경민 박민수 박석근 배봉근 서원진 서영문 이동필 이창용 임정훈 정의석 정봉용 조현우 진성태 박정환

45회(11명) 김상수 김중현 김진수 나성태 박상화 박 우 장성익 장용모 정효원 조성수 최재영 **46회(4명)** 강진희 김경현 김재철 김진근 김동희 **47회(5명)** 고달우 성상용 이경준 임형길 신중훈 **48회(2명)** 김정훈 이재희

49회(5명) 김성재 김학균 김현우 이종현 최진영 **50회(9명)** 강봉규 강철 김재훈 박원로 박원욱 안개영 유지주 이상준 정희석 **51회(3명)** 박수장 반길호 이기수 **52회(1명)** 김현진 **53회(1명)** 이재홍 **54회(1명)** 박신우 **55회(1명)** 김태연 **57회(1명)** 황성민 **59회(1명)** 최석원 **66회(1명)** 김시준

가수불명(12명) 김동진 김병복 김영수 이승현 이희희 이정일 이종명 이중수 이상백 이승훈 이준성 정덕환 **가수&이름불명(7명)** **재학생(1명)** 정민기 **기타(5명)** 오대순 4명

구독료 관련 문의
동창회 사무실
Tel. (051)245-7551~3 / Fax. (051)245-7550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 ◇ 구독료를 내주시던 동문님들께 =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좋은 지면 제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 아직 구독료를 내지 않으신 동문님들께 =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구독료(년 3만원)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행부수 증가와 증편 발행으로 제작비와 우편발송비용이 늘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구독료로 회보를 제작, 우편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료 보내주시길 계약 안내>

부산은행 028-01-032909-1 예금주 경남중고동창회

(회보와 함께 보내드리는 지로용지로 납부해도 됩니다)

김형진 김홍식 남문경 노상천 노영배 노영현 리신호 민교식 박병준 박석환 박영규 박중기 박진호 박해룡 박효성 배명철 배조인 백운용 백영호 백진수 사기희 서성철 서영태 서택민 송광관 송치영 신중현 안재홍 안동욱 압호성 오현석 유봉수 유승일 윤경섭 윤대주 윤덕승 윤명일 윤일희 이경포 이대근 이만재 이민우 이범수 이승하 이양훈 이윤남 이윤규 이윤태 이원철 이은주 이인재 이정기 이종대 이종환 이창순 이흥우 임영태 임익성 임재택 장기남 장재용 전광범 전병철 전재만 정백수 정연재 최근식 정영애 조대현 조석태 주중목 주창석 최강호 최광택 최원욱 하재근 한명재 한병석 한영호 허남식 황인업

29회(117명) 강대용 강성훈 강희철 과택성 권오영 금시환 김갑태 김기수 김기수 김대영 김대욱 김병용 김성용 김세현 김세준 김우석 김민술 김재현 김진규 김정철 김장성 김중명 김중진 김철우 김태완 김태호 김호성 김홍기 문백석 문창견 박광수 박국인 박근우 박동일 박동희 박명섭 박민준 박인범 박병준 박병준 박삼길 박성철 박인균 박정수 박장언 변중만 배진영 배현호 백성욱 사공운권 서봉고 서석희 손영보 손재찬 손태권 송철호 손홍근 신영기 신영주 신필근 신현수 신희범 신희기 안정용 양석모 양승오 양승록 명명배 오세용 윤선영 윤석희 윤 옥 윤종영 이공철 이범익 이범우 이상진 이석조 이수돈 이승호 이양호 이재성 이정운 이재환 이준환 임용호 임종태 장 만 장휘영 장정원 장정학 전정국 전정수 정길태현 정 만 정순정 정영주 정진환 정희용 제영모 조장열 조한욱 주재휘 차의수 최기훈

신수열 신용필 심재홍 안기수 안중수 양문석 양석환 여상찬 오민일 오용환 옥봉근 옥지호 윤석웅 이매철 이병근 이병태 이상일 이상식 이승원 이준기 이재용 이종우 이요연 장건호 장성호 장정철 장평우 장필석 전희수 정무석 정원규 정정남 조영기 조현우 차인용 천장호 최경우 최규상 최민국 최재선 최재식 최진석 최희영 하명수 하병관 하학열 하일현 홍 구 홍성수 홍철민 **32회(54명)** 권병근 기영수 김광기 김상범 김영길 김영현 김재하 김정철 김종성 김종식 김종관 김창범 류성철 민승철 민길식 박상학 박성규 박우상 박중호 노호환 박준현 손병철 신국선 신철호 안병철 양문석 양성기 압호성 오경명 유기준 윤종열 이병준 이상병 이승근 이재수 이종휘 이진규 이환용 임재균 전성환 정성범 정용은 정의주 정재홍 조춘식 최병석 최승찬 손병철 최영훈 최준호 최훈호 최호영 허수철 황민찬 황성범 **33회(70명)** 고창성 공진환 계동원 김광경 김근수 김기산 김범영 김병용 김원일 김태도 김태진 김정성 김중만 김중진 김중원 김진일 김 철 김중일 김태근 김태훈 김홍근 노경호 노종현 민병현 류장근 류중남 류홍영 박병제 박명진 박성범 박중은 박태중 박치호 배성수 배중현 백수현 서광기 서재영 송중현 신동현 신용준 심희환 서문 안찬모 예영찬 오상기 오창신 윤태용 이 건 이광호 이동근 이윤조 이창훈 이영근 장남국 장병한 장정석 정영호 정인일 정한우 주기환 지창근 최동호 최영두 최용남 최호재 최흥원 최환호 황경원 황중수 **34회(37명)** 강승기 과수근 김규혁 김동욱

모교발전기금 ... '모교에 대한 마지막 봉사'입니다

모교발전기금 본부동창회 접수 분

◇ 2012년 8월 20일 ~ 10월 20일 접수 분

故 표종빈 (64회) 5백만원

정인조 (5회) 1백만원

이승호 (29회) 1백만원

석대식 (30회) 30만원

최연근 (19회) 10만원

조일제 (26회) 10만원

- 총 누계 : 8억 8천9백9만원
(2012년 10월 20일 현재)

◇ 2012년 8월 20일 이전 접수 분

- △ **故** 김근준(1회) 100만원
- △ 김희철(3회) 30만원
- △ 송두호(3회) 1000만원
- △ 김주호(4회) 20만원
- △ 박석만(4회) 20만원
- △ 박홍기(4회) 30만원
- △ 양종학(4회) 300만원
- △ 장수호(4회) 100만원
- △ 정순모(4회) 200만원
- △ 나오연(6회) 100만원
- △ 노재형(6회) 10만원
- △ 오영은(6회) 200만원
- △ 이길상(6회) 30만원
- △ 이희문(6회) 30만원
- △ 임경택(6회) 10만원
- △ 장재수(6회) 20만원
- △ 정건용(6회) 10만원
- △ 정상철(6회) 30만원
- △ 정세동(6회) 20만원
- △ 최상해(6회) 10만원
- △ 허택(6회) 30만원
- △ 이우호(7회) 50만원
- △ **故**공상태(8회) 100만원
- △ 구본섭(8회) 100만원
- △ 김봉길(8회) 500만원
- △ 박동열(8회) 1000만원
- △ 윤상현(8회) 10만원
- △ 이윤조(8회) 100만원
- △ 장혁표(8회) 100만원
- △ 김영국(9회) 10만원
- △ 김태영(9회) 10만원
- △ 박당희(9회) 20만원
- △ 성백규(9회) 10만원
- △ 이대규(9회) 100만원
- △ 한동대(9회) 50만원
- △ 황영선(9회) 20만원
- △ 김상국(10회) 20만원
- △ 김선동(10회) 20만원
- △ 김성규(10회) 50만원
- △ 박재경(10회) 10만원
- △ 박종문(10회) 20만원
- △ 신대수(10회) 20만원
- △ 오광욱(10회) 200만원
- △ 이봉원(10회) 10만원
- △ 이언희(10회) 20만원
- △ 임호웅(10회) 20만원
- △ 전영대(10회) 20만원
- △ 정승석(10회) 50만원
- △ 조양제(10회) 1000만원
- △ 허영오(10회) 200만원
- △ 공상기(11회) 100만원
- △ 김재곤(11회) 30만원
- △ 백연균(11회) 30만원
- △ 심재룡(11회) 20만원
- △ 강수현(12회) 200만원
- △ 강창수(12회) 30만원
- △ 구봉근(12회) 30만원
- △ 권시길(12회) 20만원
- △ 김부생(12회) 30만원
- △ 김상희(12회) 10만원
- △ 김신일(12회) 30만원
- △ 김성찬(12회) 50만원
- △ 김수원(12회) 10만원
- △ 김홍호(12회) 10만원
- △ 김우성(12회) 10만원
- △ 김중수(12회) 50만원
- △ 김종원(12회) 10만원
- △ 김종일(12회) 10만원
- △ 김진갑(12회) 20만원
- △ 김철기(12회) 100만원
- △ 김준광(12회) 10만원
- △ 김준규(12회) 10만원
- △ 남기용(12회) 1000만원
- △ 박영운(12회) 10만원
- △ 박용운(12회) 10만원
- △ 박정윤(12회) 10만원
- △ 박종정(12회) 100만원
- △ 박창수(12회) 30만원
- △ 안상직(12회) 30만원
- △ 안영규(12회) 20만원
- △ 안병배(12회) 10만원
- △ 임태섭(12회) 30만원
- △ 오세정(12회) 20만원
- △ 옥계한(12회) 100만원
- △ 왕한균(12회) 100만원
- △ 윤성희(12회) 12만원
- △ 이수영(12회) 10만원
- △ 이송현(12회) 10만원
- △ 이영언(12회) 50만원
- △ 이원우(12회) 100만원
- △ 임정명(12회) 30만원
- △ 정대식(12회) 10만원
- △ 최병준(12회) 10만원
- △ 최병훈(12회) 10만원
- △ 최신일(12회) 20만원
- △ 탁해정(12회) 10만원
- △ 하일민(12회) 30만원
- △ 한춘배(12회) 10만원

- △ 임정명(12회) 30만원
- △ 정대식(12회) 10만원
- △ 최병준(12회) 10만원
- △ 최병훈(12회) 10만원
- △ 최신일(12회) 20만원
- △ 탁해정(12회) 10만원
- △ 하일민(12회) 30만원
- △ 한춘배(12회) 10만원
- △ 김우구(17회) 100만원
- △ 김조일(17회) 10만원
- △ 김준연(17회) 100만원
- △ 김준위(17회) 100만원
- △ 김지창(17회) 30만원
- △ 김창운(17회) 300만원
- △ 김태호(17회) 20만원
- △ 김효남(17회) 10만원
- △ 문석웅(17회) 50만원
- △ 박가식(17회) 100만원
- △ 박신도(17회) 200만원
- △ 박영두(17회) 20만원
- △ 박영일(17회) 10만원
- △ 박인사(17회) 100만원
- △ 박재구(17회) 20만원
- △ 박준구(17회) 100만원
- △ 박청홍(17회) 100만원
- △ 백철균(17회) 10만원
- △ 서재홍(17회) 20만원
- △ 서정승(17회) 200만원
- △ 손성근(17회) 200만원
- △ 송유근(17회) 30만원
- △ 송인문(17회) 100만원
- △ 신정아(17회) 10만원
- △ 신 종(17회) 30만원
- △ 안영의(17회) 30만원
- △ 여성열(17회) 10만원
- △ 오태식(17회) 100만원
- △ 우기남(17회) 50만원
- △ 윤성욱(17회) 500만원
- △ 윤수성(17회) 30만원
- △ 이건우(17회) 100만원
- △ 이상홍(17회) 30만원
- △ 이세복(17회) 1000만원
- △ 17회마산동기회(김무상, 송인창, 정광우, 최좌삼) 100만원
- △ 김길제(18회) 1000만원
- △ 김재창(18회) 50만원
- △ 김준길(18회) 100만원
- △ 류중우(18회) 30만원
- △ 박석도(18회) 20만원
- △ 박준성(18회) 20만원
- △ 황광건(18회) 100만원
- △ 강영범(19회) 10만원
- △ 김경재(19회) 100만원
- △ 김문기(19회) 20만원
- △ 김봉호(19회) 500만원
- △ 김삼도(19회) 10만원
- △ 김석윤(19회) 20만원
- △ 김양곤(19회) 50만원
- △ 김영우(19회) 100만원
- △ 김정국(19회) 10만원
- △ 김중기(19회) 10만원
- △ 김철호(19회) 100만원
- △ 남기진(19회) 100만원
- △ 박갑진(19회) 30만원
- △ 박동화(19회) 300만원
- △ 박종화(19회) 100만원
- △ 성낙출(19회) 100만원
- △ 안정모(19회) 20만원
- △ 이용만(19회) 10만원
- △ 이용훈(19회) 1000만원
- △ 이정희(19회) 100만원
- △ 장영년(19회) 500만원
- △ 최화익(19회) 10만원
- △ 황태경(19회) 20만원
- △ 황태원(19회) 1000만원
- △ 황호균(19회) 100만원
- △ 강석근(20회) 300만원
- △ 강영환(20회) 10만원
- △ 김세준(20회) 100만원
- △ 김일석(20회) 100만원
- △ 김태선(20회) 300만원
- △ 김태영(20회) 500만원
- △ 김형오(20회) 1000만원
- △ 박병철(20회) 500만원
- △ 박형준(20회) 100만원
- △ 백문찬(20회) 100만원
- △ 신원기(20회) 200만원
- △ 이실근(20회) 100만원
- △ 장상배(20회) 300만원
- △ 장춘식(20회) 10만원
- △ 정규식(20회) 300만원
- △ 정용환(20회) 300만원
- △ 차상곤(20회) 200만원
- △ 채경석(20회) 200만원
- △ 최장하(20회) 300만원
- △ 한기원(20회) 100만원
- △ 허규판(20회) 1000만원
- △ 허남균(20회) 300만원
- △ 21회 동기회 4710만원
- △ 김우홍(22회) 300만원
- △ 민훈기(22회) 10만원
- △ 이동열(22회) 100만원
- △ 장성복(22회) 1000만원
- △ 조윤재(22회) 200만원
- △ 김동욱(23회) 200만원
- △ 김동욱(23회) 50만원
- △ 김성영(23회) 50만원
- △ 김영기(23회) 200만원
- △ 김용기(23회) 20만원
- △ 김정록(23회) 20만원
- △ 김중광(23회) 100만원
- △ 김태용(23회) 100만원
- △ 노영배(23회) 200만원
- △ 박수갑(23회) 100만원
- △ 서영수(23회) 100만원
- △ 서한현(23회) 10만원
- △ 손근식(23회) 100만원
- △ 송총송(23회) 50만원
- △ 신상희(23회) 100만원
- △ 안병울(23회) 20만원
- △ 안병희(23회) 200만원
- △ 옥치범(23회) 200만원
- △ 원인건(23회) 200만원
- △ 육병천(23회) 20만원
- △ 윤순현(23회) 200만원
- △ 이동성(23회) 100만원
- △ 이문희(23회) 200만원
- △ 이병찬(23회) 300만원
- △ 이상수(23회) 50만원
- △ 이홍호(23회) 100만원
- △ 전영조(23회) 200만원
- △ 전원희(23회) 30만원
- △ 정상건(23회) 200만원
- △ 조현표(23회) 50만원
- △ 채행운(23회) 100만원
- △ 최인식(23회) 50만원
- △ 하복진(23회) 20만원
- △ 하영근(23회) 50만원
- △ 24회 동기회 4500만원
- △ 25회 동기회 6470만원
- △ 김진철(25회) 1000만원
- △ 박맹우(25회) 30만원
- △ 김영년(26회) 100만원
- △ 김상현(26회) 500만원
- △ 김우갑(26회) 50만원
- △ 김중우(26회) 200만원
- △ 김태권(26회) 10만원
- △ 김 형(26회) 200만원
- △ 김홍용(26회) 200만원
- △ 박권병(26회) 200만원
- △ 박상호(26회) 500만원
- △ 배우호(26회) 50만원
- △ 성재업(26회) 50만원
- △ 성재일(26회) 200만원
- △ 양준영(26회) 50만원
- △ 왕정일(26회) 100만원
- △ 이규생(26회) 70만원
- △ 이상원(26회) 100만원
- △ 이순철(26회) 50만원
- △ 이영택(26회) 100만원
- △ 정거돈(26회) 100만원
- △ 정국근(26회) 100만원
- △ 정익교(26회) 50만원
- △ 하원규(26회) 500만원
- △ 하주근(26회) 50만원
- △ 류재길(27회) 10만원
- △ 윤종락(27회) 10만원
- △ 이요섭(27회) 30만원
- △ 구영소(28회) 100만원
- △ 김명영(28회) 100만원
- △ 김용석(28회) 100만원
- △ 김형진(28회) 100만원
- △ 김홍중(28회) 100만원
- △ 노영현(28회) 200만원
- △ 박석환(28회) 100만원
- △ 송명석(28회) 20만원
- △ 윤경성(28회) 100만원
- △ 이원철(28회) 300만원
- △ 한수범(28회) 50만원
- △ 김기영(29회) 50만원
- △ 김대욱(29회) 3000만원
- △ 김석윤(29회) 30만원

모교발전기금 입금 계좌

- 소득공제 혜택이 필요한 경우
(부산은행) 029-01-030712-1
예금주 : (재)용마장학회 안강태
- 소득공제 혜택이 필요 없는 경우
(부산은행) 029-01-030713-0
예금주 : 경남중고발전위원회 이용훈

- △ 김정성(13회) 30만원
- △ 정철기(13회) 30만원
- △ 김경일(15회) 1000만원
- △ 서정욱(15회) 10만원
- △ 손부홍(15회) 500만원
- △ 이상모(15회) 30만원
- △ 하정부(15회) 10만원
- △ 강종국(16회) 10만원
- △ 강진중(16회) 10만원
- △ 여성규(16회) 10만원
- △ 강주수(17회) 10만원
- △ 권경술(17회) 100만원
- △ 김길호(17회) 100만원
- △ 김동수(17회) 500만원
- △ 김동조(17회) 10만원
- △ 김두백(17회) 10만원
- △ 김두부(17회) 100만원
- △ 김백수(17회) 300만원
- △ 김병문(17회) 30만원
- △ 김상천(17회) 100만원
- △ 김성락(17회) 10만원
- △ 김성우(17회) 50만원
- △ 김승현(17회) 100만원
- △ 이수창(17회) 100만원
- △ 이우기(17회) 10만원
- △ 이일영(17회) 10만원
- △ 이정보(17회) 10만원
- △ 이종길(17회) 10만원
- △ 이중혁(17회) 100만원
- △ 이형우(17회) 100만원
- △ 장승구(17회) 200만원
- △ 전경명(17회) 100만원
- △ 정태일(17회) 100만원
- △ 정해표(17회) 10만원
- △ 제양성(17회) 50만원
- △ 조운운(17회) 30만원
- △ 조준언(17회) 500만원
- △ 천운공(17회) 10만원
- △ 최만식(17회) 5000만원
- △ 최성호(17회) 1000만원
- △ 추봉실(17회) 10만원
- △ 하영수(17회) 300만원
- △ 허중언(17회) 30만원
- △ 황중부(17회) 10만원
- △ 현태일(17회) 100만원

'모교사랑'은 '행동'... 애교심을 보여줍니다.

고 표종빈 동문(64회)의 아버지 표창술씨, 발전기금 5백만원 기탁

“군에서 순직한 아들 이름으로... 후배들 위해 써달라”

육군 이기자 수색대대 복무 중 교통사고로 숨져 아들 잃은 슬픔 누르고 사기 떨어진 부대원들을 위로

지난 10월 22일 오전 본부동창회 사무실에 50대 초반의 부부가 찾아와 “군에서 순직한 내 아들이 경남고 64회 졸업생”이라고 밝히고 “아들의 이름으로 발전기금을 내겠다”며 5백만원을 맡겼다.

찾아온 이는 표창술 씨(53세, 부산고 32회)부부. 표 씨의 아들 **故 표종빈 동문(64회)**은 동명대 전기공학과에 다니다가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에 입대, 육군 이기자 수색대대에서 복무하다가 지난 8월 23일 순직했다. 매복훈련을 마치고 귀대하다가 트럭이 전방대에 부딪치면서 전복하는 바람에 숨진 것이다. 당시 트럭에는 운전병 포함, 모두 13명의 군인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병 바로 뒷자리에 앉아있던 표 동문만 숨지고 다른 군인들은 부상만 입었다고 한다.

1남1녀의 맏이였던 표 동문은 군 입대 전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부모님 결혼 23주년 기념여행을 보내주기도 했던 효자였다. 그는 입대 후 신병교육을 마치고

남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수색대대를 지원했다고 한다. 모범적인 군인으로 부대원들과 잘 어울렸고 축구를 잘해 부대원들의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하나뿐인 아들의 부음은 표씨 부부에게는 천천벽력이었다. 슬픔에 젖어있을 때 이기자 수색대대의 부대원들이 표 동문의 죽음을 이후 의기소침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표씨 부부는 아들이야 이왕 나라에 바쳤지만 그로인해 부대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며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대장(衛)으로 장례를 치른 뒤 표 동문의 어머니는 이기자 부대원들의 인터넷카페에 아들의 동료군인들에게 보내는 글을 올렸다.

“(사고로 숨진 군인이) 우리 종빈이 혼자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부부는) 이번 일로 더 많은 아들을 얻었다. 장병 여러분이 빨리 용기를 되찾고 힘을 내는 것이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길”이라는 내용



故 표종빈 동문

이었다.

아버지 표씨도 따로 부대장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마냥 슬퍼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 이번 사고로 가라앉은 부대의 분위기가 하루 빨리 예전처럼 되돌아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조의금 일부를 보내니 부대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써달라”는 내용이였다.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슬픔을 누르고 오히려 남을 위로하는 숭고한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이런 사실은 이기자 수색대대의 한 군인이 보낸 편지를 조선일보가 보도,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표씨는 “우리 종빈이가 입대할 날이 2010년 8월 23일이었는데 사고로 숨진 날도 딱 1년 뒤 바로 그날인 8월 23일이였다”며 “부모자식 간의 인연도 거기까지 인 모양”이라며 답답하게 말했다.

그는 “경남고 동창회도 우리 부산고 동창회처럼 모교 발전기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터넷에서 경남고동창회 홈페이지를 검색해 주소를 알아냈다”며 “종빈이 이름으로 내는 이 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종빈이의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표씨는 현재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서 아파트 등에 청소와 경비업무 인력을 대주는 소규모 용역회사인 (주)신우시스템을 경영하고 있다.

〈황유명 편집위원(29회, 본부동창회 사무총장)〉

△ 김영기(29회) 10만원	△ 서하수(30회) 200만원	△ 김경영(31회) 12만원	△ 이승진(31회) 12만원	△ 한상봉(33회) 100만원	△ 백선민(41회) 10만원
△ 김인술(29회) 100만원	△ 송영환(30회) 100만원	△ 김기정(31회) 100만원	△ 이재운(31회) 24만원	△ 34회 동기회 1000만원	△ 변영호(41회) 10만원
△ 박동일(29회) 50만원	△ 송한식(30회) 30만원	△ 김 만(31회) 100만원	△ 장건호(31회) 12만원	△ 이재완(34회) 500만원	△ 신동진(41회) 20만원
△ 박성철(29회) 200만원	△ 신범주(30회) 30만원	△ 김성수(31회) 300만원	△ 장성호(31회) 12만원	△ 이진호(34회) 200만원	△ 안광근(41회) 10만원
△ 배진영(29회) 100만원	△ 신영주(30회) 30만원	△ 김영철(31회) 12만원	△ 장재훈(31회) 12만원	△ 김동인(35회) 10만원	△ 유수호(41회) 10만원
△ 송희태(29회) 50만원	△ 신윤원(30회) 30만원	△ 김재술(31회) 60만원	△ 장평우(31회) 300만원	△ 김병수(35회) 10만원	△ 윤성보(41회) 20만원
△ 양승오(29회) 80만원	△ 안중화(30회) 100만원	△ 김정덕(31회) 12만원	△ 정 문(31회) 120만원	△ 이남기(35회) 10만원	△ 이경석(41회) 50만원
△ 윤형근(29회) 50만원	△ 오경태(30회) 10만원	△ 김정택(31회) 12만원	△ 정인화(31회) 12만원	△ 황용순(35회) 10만원	△ 이경호(41회) 30만원
△ 이경호(29회) 100만원	△ 왕순모(30회) 30만원	△ 김종호(31회) 120만원	△ 정정남(31회) 132만원	△ 김철원(36회) 100만원	△ 이양걸(41회) 200만원
△ 이석조(29회) 500만원	△ 유영록(30회) 10만원	△ 김진국(31회) 12만원	△ 정철수(31회) 500만원	△ 이동희(36회) 30만원	△ 이종민(41회) 10만원
△ 임광열(29회) 100만원	△ 유재일(30회) 10만원	△ 김태근(31회) 100만원	△ 조성근(31회) 12만원	△ 임창섭(36회) 10만원	△ 이주하(41회) 30만원
△ 전장화(29회) 100만원	△ 윤성덕(30회) 1000만원	△ 김판덕(31회) 12만원	△ 조영기(31회) 24만원	△ 정인석(36회) 30만원	△ 이준석(41회) 10만원
△ 장 만(29회) 100만원	△ 윤인태(30회) 50만원	△ 김현주(31회) 12만원	△ 조현우(31회) 12만원	△ 김길영(37회) 20만원	△ 허치희(41회) 10만원
△ 장 길(29회) 100만원	△ 윤준순(30회) 30만원	△ 김현울(31회) 12만원	△ 천창호(31회) 12만원	△ 김원범(37회) 10만원	△ 정필상(41회) 10만원
△ 정성훈(29회) 100만원	△ 이광봉(30회) 30만원	△ 남기태(31회) 200만원	△ 최경우(31회) 32만원	△ 박용진(37회) 50만원	△ 조원호(41회) 10만원
△ 김석철(30회) 30만원	△ 이광희(30회) 20만원	△ 남철우(31회) 60만원	△ 최봉근(31회) 12만원	△ 조영규(37회) 20만원	△ 천성원(41회) 10만원
△ 권영인(30회) 30만원	△ 이기환(30회) 30만원	△ 류명석(31회) 100만원	△ 최상규(31회) 12만원	△ 홍병일(37회) 10만원	△ 최호열(41회) 10만원
△ 권용택(30회) 50만원	△ 이영준(30회) 30만원	△ 박성수(31회) 200만원	△ 최재호(31회) 12만원	△ 홍원석(37회) 10만원	△ 추교용(41회) 30만원
△ 구을석(30회) 10만원	△ 이인길(30회) 50만원	△ 박석기(31회) 100만원	△ 최진섭(31회) 200만원	△ 황태윤(37회) 10만원	△ 허치희(41회) 50만원
△ 김경수(30회) 30만원	△ 이학수(30회) 700만원	△ 박석두(31회) 100만원	△ 최해영(31회) 12만원	△ 박준표(38회) 20만원	△ 홍동훈(41회) 30만원
△ 김기업(30회) 50만원	△ 이한수(30회) 20만원	△ 박인정(31회) 12만원	△ 최효식(31회) 60만원	△ 오희진(38회) 10만원	△ 홍석우(41회) 50만원
△ 김백수(30회) 30만원	△ 이환기(30회) 30만원	△ 박종규(31회) 100만원	△ 하학열(31회) 120만원	△ 이종명(38회) 300만원	△ 41회 산악회 30만원
△ 김상직(30회) 10만원	△ 인준승(30회) 20만원	△ 박희암(31회) 12만원	△ 한광규(31회) 12만원	△ 김도경(39회) 20만원	△ 이음상(43회) 10만원
△ 김성복(30회) 10만원	△ 임유수(30회) 50만원	△ 배정우(31회) 12만원	△ 허일현(31회) 12만원	△ 김진호(39회) 20만원	△ 44회 동기회 500만원
△ 김세일(30회) 30만원	△ 임영호(30회) 30만원	△ 서동균(31회) 12만원	△ 홍성수(31회) 120만원	△ 양정교(39회) 10만원	△ 김해지역동창회 300만원
△ 김승대(30회) 10만원	△ 장영조(30회) 30만원	△ 서수교(31회) 100만원	△ 김창범(32회) 20만원	△ 한성호(39회) 10만원	△ 뉴질랜드동창회 50만원
△ 김옥성(30회) 10만원	△ 정영호(30회) 100만원	△ 서태고(31회) 100만원	△ 이병준(32회) 100만원	△ 김영진(40회) 10만원	△ 부산교통공사용마회 100만원
△ 김재수(30회) 30만원	△ 정승진(30회) 30만원	△ 성오용(31회) 12만원	△ 허 규(32회) 10만원	△ 이영철(40회) 10만원	
△ 김종진(30회) 30만원	△ 정재화(30회) 60만원	△ 손은정(31회) 12만원	△ 계동원(33회) 30만원	△ 강병오(41회) 10만원	△ 사하지역동창회 300만원
△ 김중휘(30회) 100만원	△ 천승길(30회) 10만원	△ 손정수(31회) 24만원	△ 김기산(33회) 10만원	△ 강석희(41회) 10만원	
△ 김창근(30회) 30만원	△ 최상호(30회) 50만원	△ 손진기(31회) 12만원	△ 김범영(33회) 2000만원	△ 김기영(41회) 10만원	△ 재동경문화 200만원
△ 김해근(30회) 200만원	△ 최영규(30회) 20만원	△ 신상하(31회) 12만원	△ 김재선(33회) 10만원	△ 김범성(41회) 20만원	△ 김경욱(전 경중 재직교사) 100만원
△ 김현태(30회) 100만원	△ 최우철(30회) 500만원	△ 신수열(31회) 12만원	△ 김중인(33회) 12만원	△ 김봉준(41회) 30만원	
△ 박동욱(30회) 50만원	△ 최재봉(30회) 100만원	△ 심규열(31회) 12만원	△ 류장근(33회) 100만원	△ 김형률(41회) 50만원	△ 남석희(전 경고 재직교사) 30만원
△ 박원호(30회) 100만원	△ 추태규(30회) 10만원	△ 심재홍(31회) 12만원	△ 류홍영(33회) 30만원	△ 남관희(41회) 30만원	
△ 박재백(30회) 30만원	△ 허규양(30회) 100만원	△ 안기수(31회) 24만원	△ 박명진(33회) 2500만원	△ 류지섭(41회) 30만원	△ 기 타이름불명) 3만원
△ 박정태(30회) 30만원	△ 허진근(30회) 10만원	△ 안우현(31회) 60만원	△ 박성병(33회) 10만원	△ 박정기(41회) 20만원	
△ 박철우(30회) 100만원	△ 허영재(30회) 30만원	△ 오민일(31회) 300만원	△ 백수현(33회) 50만원		
△ 서강태(30회) 10만원	△ 황철민(30회) 100만원	△ 오용환(31회) 120만원	△ 서재영(33회) 100만원		
△ 서민석(30회) 60만원	△ 30회 울산동기회 450만원	△ 윤정수(31회) 20만원	△ 신용준(33회) 10만원		
△ 서복현(30회) 100만원	△ 공광욱(31회) 50만원	△ 이병태(31회) 100만원	△ 익 명(33회) 1000만원		
△ 서재원(30회) 30만원	△ 공종렬(31회) 12만원	△ 이석우(31회) 12만원	△ 최영두(33회) 12만원		

기금 기탁관련 문의

본부동창회 사무총장 황유명

Tel. (051)245-7551~3 / Fax. (051)245-7550

동기회 소식

◇ 17회 = 이사회 개최, 연말총회 등 논의



지난 10월 12일 자갈치 소재 '호포횃집'에서 이사회를 열고 동기회 회칙 및 연말 총회, 2013년도 새 집행부 등에 대해 논의. 30여명의 동기들이 참석.

◇ 18회 = 가을 아우회, 트레킹 즐겨

지난 10월 14일 경남 양산시 원동면 소재 '파래소 유스호스텔'에서 가을 아우회를 가졌다.

동기들과 그 가족들은 이날 언양 배내골 철구소개곡에서 주암마을까지 트레킹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21회 = '해수남' 창립총회



지난 10월 5일 남전동 소재 '동화반집'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운대·수영·남구 동기회' 약칭 '해수남'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해수남'의 회장에는 최수명 동기, 총무에는 정영천 동기

가 임명됐다.

◇ 25회 = 거제도 1일 관광

지난 10월 21일 거제도 1일 관광을 했다. 동기들은 서면 영광에서 입구에서 모인 뒤 차량을 이용, 거가대교, 장사도 해상공원 및 고현포로수용소, 하청면 맹종죽 테마공원 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저녁에는 부산으로 돌아와 자갈치 오야제비페에서 만찬.

◇ 26회 = 이사회 열고 아우회 등 논의

지난 10월 19일 서면 소재 '신토불이'에서 이사회를 열고 차기 동기회장 선임 및 모교발전기금 모금, 11월 아우회의 건 등에 대해 논의.

◇ 30회 = 1박2일 가을소풍, 50명 참가

지난 10월 6일~7일 1박2일 일정으로 전북 부안소재 채서강 일원에서 가을나들이를 했다.

서울과 부산에서 참석한 50여명의 동기들과 그 가족들은 첫날 제기차기, 넌센스게임, 동전 던지기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튿날에는 채서강 산책 및 내변산 산행을 하며 가을의 정취를 즐겼다.

◇ 36회 = 임시총회 열고 현안 논의

지난 9월 26일 하단 소재 '강촌해미리타운'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졸업 30주년 홀커밍데이 결산보고와 제44회 기별야구 대회 입장식 및 축전권 등에 대해 논의.

◇ 38회 = 가족등반대회



지난 10월 7일 대신동 꽃마을 일원에서 가족등반대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이날 모교 정문에서 출발, 대신동 꽃마을까지 등산을 한 뒤 쪽구시합과 행운권 추첨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43회 동기회 = 정기모임

지난 9월 21일 중앙동 소재 '민아식당'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동기회 재정 보고와 기별야구대회 참가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 동창회, 동호회 소식

◇ 사하지역동창회 = 정기총회 및 가족아우회

지난 10월 28일 송도해수욕장 일원에서 가족아우회 겸 정기총회를 가졌다.

오전 9시 송도해수욕장 분수대에서 집결하여 해안도로인 '블레길'을 산책하고 인근 부산환경공단 중앙사업소 족구장에서 족구 시합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오거돈 본부 동창회장, 경남고 김원용 교장, 재경동창회 고창우 사무총장 등이 자리를 같이 했다.

◇ 해운대지역동창회 = 정기모임

지난 9월 27일 해운대 신도시 내 '비단비'에서 5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모임을 가졌다.

◇ 김해지역동창회 = 정기모임

지난 10월 12일 김해 서상동 소재 '영덕수산'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연말총회 개최 및 추진위원 선임 등을 논의.

◇ 재 중국 산동지역동창회 = 백두산 여행

지난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백두산 여행을 하였다.

부부 동반으로 떠난 이번 여행은 도문, 연변, 용정 지역 등을 관광한 뒤 김영태 동문(30회)의 안내로 백두산에 올랐다.

◇ 기독교동문회 = 열 번째 만남의 밤

지난 10월 25일 부경대 내 비스타스에서 1백여명의 기독교 동문 및 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 번째 만남의 밤' 행사를 가졌다.

어디서 무엇을...

<6회>

△이길상 = 부산 그라운드 골프회장, 10월6일 부산 시민의 날 행사에서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장 받음

<8회>

△이상목 = 오림재단(수목장) 감사

<9회>

△윤진한 = 9월27일 모친상 △김성우 =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3-1 신장 비바패밀리A. 104-604

<10회>

△고용재 = 부산시 연제구 연산4동 585번지 무지개A. 1508호, 070-8981-4636 △이민섭 = 부인 조순향 교수, '노자돈 모자란 아이' 수필집으로 남촌문학상 수상 △정종만 = 부산시 서구 부용동 1가 20-15 천아트림A. 1102호, 257-0922

<13회>

△김용길 = 9월1일 모친상, 성가정성당 △박건일 =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리 980-23번지 성화회센터, 061-434-

0045 △임국진 = 10월 27일 장녀 결혼, 베르디하우스서울 △장위우 = 부산시 급정구 장전2동 벽산블루밍A. 202-204

<14회>

△박춘제 = 9월15일 장남 결혼, 부산 메리움 웨딩홀 △조보근 = 9월28일 장인상, 대동병원 △故장원주 = 10월28일 차남 결혼, 울산 공업탑컨벤션웨딩

<16회>

△이명수 = 10월14일 차남 결혼, 부산 범내골 제일웨딩 △이훈민 = 9월22일 차남 결혼, 남서울교회 △최윤철 = 10월14일 딸 결혼, 서울 남부터미널 노블레스 컨벤션홀 △홍용찬 = 전 재경동창회장, 8월29일 모친상, 서울 성모병원 △황규정 = 11월 17일 아들 결혼, 서울 아이컨벤션웨딩

<17회>

△김영직 = 9월22일 차남 결혼, 서울 은누리교회 △김승문 = 9월18일 모친상, 신촌 세브란스병원 △신철우 = 9월1일 모친상, 동래 한서병원 △유진양 = 9월12일 장모

상, 세브란스병원 △윤수성 = 11월4일 장녀 결혼, 서울 법원종합청사예식장 △정동길 = 11월10일 차남 결혼, 코모도호텔 △주상한 = 10월27일 장남 결혼, 서울 컨벤션예식장 △최성호 = 9월4일 부친상, 부산의료원 △최좌삼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164-50번지 △현태일 = 9월14일 장녀 결혼, 미국 뉴욕킴프론호텔 <18회> △진상영 = 9월15일 장남 결혼, 대구 웨딩비엔나 <19회> △정태규 = 10월21일 딸 결혼, 서울 삼정호텔 <20회> △김성진 = 9월8일 장녀 결혼, 서울 스탠포드호텔 △김홍직 = 11월17일 장남 결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박현렬 = 9월8일 출판문화회관에서 힐링 관련 수필집 <힐링·힐링의 세계, 두 자연의 하모니> 출판기념회 △양승태 = 9월25일, '대법원장 취임 1주년 특별대담', SBS 현장21 △이영모 = 9월22일 빙모상, 강남 성모병원 △천태삼 = 10월1일 부친상, 동아대병원 △한개정 = 9월6일 빙부상, 마산 연세병원

<21회>

△김중진 = 10월20일 딸 결혼, 세종문화회관 △문동철 = 10월20일 장녀 결혼, 서울 광림교회 △심광섭 = 10월28일 차녀 결혼, 마산 웨딩그랜드 △인재식 = 11월2일 차녀 결혼,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장정표 = 10월14일 차남 결혼, 창원 웨딩의 전당 △조진호 = 9월23일 딸 결혼, 서울 엘타워 △최재권(큰) = 9월28일 부친상, 영락공원 △변창섭 = 11월3일 장남 결혼, 대구 수성관광호텔

<22회>

△권성술 = 10월12일 장남 결혼, 서울 엘루체컨벤션 △김성연 = 10월27일 장남 결혼, 서울 빌라드베일리 △김양규 = 9월17일 아들 결혼, 서울 반야트리클럽스파 △김창해 = 10월27일 장녀 결혼, 서울 빌라드베일리 △문용현 = 9월2일 아들 결혼, 서울 헤리츠웨딩컨벤션 △박철민 = 10월16일 딸 결혼, 서울 데베일리하우스 △변중호 = 11월11일 장남 결혼, W-city 웨딩홀 △허범도 = 10월11일 새누리당 박근혜후보 '중소기업진흥 특별본부장'에 임명

<23회>

△강기표 = 9월15일 장남 결혼, 코엑스컨벤션센터 △김경섭 = 8월23일 장모상, 서

<9면에 계속>

울 보훈병원 △김상수 = 9월22일 장녀 결혼, 남산 하이얏호텔 △김태정 = 9월14일 장모상, 현대아산병원 △박원기 = 10월12일 모친상, 현대아산병원 △심병헌 = 8월29일 모친상, 의정부 보라병원 △안병울 = 10월10일 차남 결혼, 해운대 그랜드호텔 △안호창 = 9월1일 상배, 성모병원 △유석산 = 10월20일 장남 결혼, 서울 영락교회 △이대우 = 8월25일 차남 결혼, 서울 교육문화회관 △최세림 = 9월23일 차녀 결혼, 서울 하우스보노스티엄 △한영철 = 2012년 8월부터 동기회 사무실 실장으로 봉사 근무 △홍영희 = 눈 대수술 후 자택에서 가료 중

<24회>

△강성철 = 10월13일 장남 결혼, 한강로 웨딩코리아 △김현태 = 9월24일 장모상, 남천성당 △서정대 = 9월15일 차녀 결혼, 더컨벤션웨딩홀 △이정희 = 9월23일 딸 결혼, 서울 아펠가모웨딩홀 △임성근 = 10월13일 장남 결혼, 서울 교육문화회관 △전응우 = 10월19일 차남 결혼, 서울 컨벤션웨딩홀

<25회>

△강성호 = 11월10일 장녀 결혼, 전주교역삼동성당 △권진향 = 10월1일 모친상, 수지성묘병원 △김동진 = 9월8일 장남 결혼, 해운대그랜드호텔 △김세진 = 9월19일 모친상, 신촌 연세브란스장례식장 △김수근 = 10월13일 차녀 결혼, 서울대 연구공원웨딩홀 △김인섭 = 10월27일 장녀 결혼, 서울 서초성당 △김종택 = 10월15일 장모상, 성요셉병원 △김창욱 = 10월14일 차녀 결혼, 임페리얼 펠리스 서울 △배종오 = 9월25일 모친상, 동아대병원 △서보민 = 9월19일 장모상, 신촌연세브란스장례식장 △신성찬 = 9월22일 장남 결혼, 서울 수아비스 웨딩홀 △이기상 = 11월3일 아들 결혼, 서울 천호동성당 △조중진 = 10월13일 차남 결혼, 센텀 호텔

<26회>

△강영원 = 8월25일 빙부상, 서면 온병원 △구재우 = 10월6일 부친상, 군산의료원 △김광대 = 10월27일 차녀 결혼, 신라호텔 △김기표 = 경기대 융합보안학과 교수선임, 전 한국법제연구원장 △김성철 = 8월3일 빙모상, 서울한일병원 △김주만 = 10월27일 장녀 양 결혼, 열반인 은누리교회 △김택영 = 8월25일 차녀 결혼, 서울 호텔 리즈칼튼블룸 △박능출 = 창원시설공단 상임이사 체육본부장 취임 △박오옥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총장, 8월19일 아들 결혼, 서울 엘타워 △박인섭 = 10월27일 장녀 결혼, GS 타워 △박종국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 역학사적 '운철기삼 뉴테크닉' 책 발간 △배갑삼 = 민주통합당 부산시장 대변인 △왕정일 = 10월27일 장녀 결혼, 해운대 그랜드호텔 △이우용 = 9월8일 차남 결혼, 센텀 임페리얼웨딩홀 △이재학 = 10월27일 장녀 결혼, 서울 한국가구박물관 △이현근 =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소장 취임 △정삼용 = 9월26일 빙모상, 부산대병원 △정태현 = 8월25일 장남 결혼, 서울 사랑의 교회 △현동우 = 씨앤씨 대표이사, 9월2일 빙부상, 한림대학교 성심

병원 △황우주 = 11월4일 차녀 결혼, 서울 프라자 호텔

<27회>

△정상근 =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8월20일 부친상, 울산 좋은삼정병원 △도재원 = 대한 척추신경외과 학회장 취임, 순천향대 의대교수

<28회>

△김병수 = 10월6일 장녀 결혼, JS강남웨딩문화원 △김은형 = 9월28일 장모상, 서울 중앙보훈병원 △김재덕 = 10월17일 모친상, 삼신장례식장 △김지원 = 9월4일 모친상, 서울 삼성의료원 △김한규 = 11월11일 장녀 결혼, 서울 메리츠타워 △배정환 = 9월3일 부친상, 부산의료원 △백선욱 = 10월10일 장인상, 강남성모병원 △송재성 = 9월19일 장모상, 서울 신촌 세브란스장례식장 △신익모 = 10월3일 장녀 결혼, 서울 오나르바이오스티엄 △엄호성 = 전 국회의원, 10월 15일 사단법인 부산산업네트워크 협의회 창립 △이승보 = 9월13일 모친상, 부산의료원 △이원철 = 10월7일 장녀 결혼, 서울 헤리츠타워 △이진희 = 10월13일 장녀 결혼, 서울 컨벤션헤리츠 △한원택 = 9월 22일 장남 결혼, 광주 꿈의 궁전웨딩홀

<29회>

△김세원 = 9월8일 장남 결혼, 해운대 그랜드호텔 △김태원 = 11월10일 장녀 결혼, 부산 누리엔 웨딩홀 △박성철 = 부인 '제 10회 김금이 개인전' 개최, 10월22일 ~ 10월28일, 부산시청 제1전시실 △배성한 = 10월18일 장모상, 진주 경상대병원 △배호경 = 10월15일 모친상, 삼성서울병원 △신영주 = 9월14일 부친상, 부산 서호병원 △안중주 = 전 한겨레 신문 부장, 문재인캠프 언론특보 △윤선영 = 9월19일 장모상, 부산 시립의료원 △이공철 = 10월21일 장녀 결혼, 부산문화회관 웨딩의전당 △이승우 = 11월18일 장녀 결혼, 서울 GS타워 △이현률 = 10월17일 장모상, 서울 삼성의료원 △전현수 = 전 현수 신경정신과의원, <정신과 의사가 들려주는 생각사용설명서> 발간 △정영주 = 8월22일 장인상, 강남 삼성병원 △차동렬 = 10월13일 아들 결혼, 서울 아네스웨딩컨벤션 △최원락 = 9월4일~16일, 최원락 사진전 '있다가 없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갤러리 류가현 △허남건 = 서강대 교수, 2013년 대한기계학회 수석부회장 선출 △홍종진 = 9월22일 모친상, 일산백병원

<30회>

△김준호 = 9월2일 모친상, 강남성모병원 △김창범 = 8월27일 장모상, 한서요양병원 △윤용규 = 9월23일 장인상, 대전 충남대의료병원 △이기환 = 한국해양대 국제대학 학장 선임 △이창홍 = 10월28일 딸 결혼, LG아트센터 △서강태 = 부산중앙고 교감 △송한식 = 전 동아대 비서실장, 동아대 국제교류교육원장 △장정찬 = 9월15일 장남 결혼, 잠실교통회관 △정우정 = 8월19일 모친상, 백병원 △최금석 = 8월 21일 장인상, 한서병원

<31회>

△박석기 = 10월21일 장녀 결혼, 하버컨

벤션 웨딩홀 △서동균 = 10월14일 장녀 결혼, 해운대 그랜드호텔 △서정호 = 10월13일 장남 결혼, 대구 호텔인터블고엑스코 △신상하 = 8월20일 부친상, 좋은강안병원 △이현수 = 8월27일 모친상, 보라매병원 △정석균 = 10월18일 장모상, 강산병원

※ 지난 호에 실규원 동문을 '동아대 법학박사'로 보도했으나 이를 '동의대 대학원 법학박사'로 바로 잡습니다.

<32회>

△김종관 = 9월2일 부친상, 창원삼성병원

<33회>

△박용득 = '제주돈가' 개업, 해운대구 우동 1483번지 한화 꿈에그린A. 옆, 010-5504-2800

<34회>

△김승기 = 10월2일 부친상, 삼신장례식장 △김동원 = 인제대 상계백병원 진료협력센터 소장 △박서호 = 8월27일 모친상, 한서병원 △이수형 = 10월6일 딸딸 결혼, 서울 플라자호텔 △최해협 = 8월18일 장인상, 좋은강안병원

<35회>

△서장우 = 8월27일 모친상, 좋은강안병원 △이강혁 = 8월21일 부친상, 성모병원 △이기석 = 8월20일 모친상, 부산장례식장 △이종택 = 9월17일 모친상, 서호병원

<36회>

△김덕주 = 9월14일 부친상, 동아대병원 △김영대 = 10월18일 부친상, 온종합병원 △김준안 = 8월19일 장인상, 김해 전문장례식장 △김철원 = 9월9일 부친상, 부산의료원

<38회>

△노재완 = '고래와 전복' 개업, 부용동 동아대 부민캠퍼스 맞은 편 18번 완당집 옆 △이임배 = 8월22일 장인상, 서호병원

<39회>

△김경호 = 10월3일 부친상, 삼신장례식장 △김진구 = 8월23일 부친상, 보훈병원 △정성윤 = 9월19일 빙부상, 좋은강안병원 △조금룡 = 10월18일 빙부상, 한서요양병원

<41회>

△김영수 = 중앙구청 재무관 재산관리팀장 △이상희 = 9월11일 부친상, 서호병원 △조현일 = 9월14일 모친상, 동산병원

<42회>

△육동석 = 박대중 국회의원 보좌관

<43회>

△박성환 = '시골통돼지볶음' 개업, 광안리 금련산역 5번 출구 코요롱 빌딩 뒤쪽, 051-625-0091

<45회>

△구자삼 = 10월13일 둘째 들잔지, 중앙동 라비뷰페

<51회>

△홍성범 = 김한표 국회의원 비서관

<52회>

△박찬용 = 여상규 국회의원 비서관

부음

▲김창국(9회) = 전 김창국피부비뇨기과 원장, 7월24일 별세 ▲임근문(9회) = 전 분포주유소 대표, 10월10일 별세 ▲김용호(12회) = 전 반여중학교 교장, 10월4일 별세, 황성장례식장 ▲박계부(13회) = 전 (주)신명정밀 대표이사, 9월2일 별세, 분당 서울대병원 ▲배이영(16회) = 9월15일 별세, 성모병원 ▲서정식(16회) = 9월12일 별세, 연세세브란스병원 ▲이기일(17회) = 전 (주)대명ENG 회장, 9월13일 별세, 부산대병원 ▲이정희(17회) = 전 대한제분(주) 대표이사, 9월 17일 별세, 현대아산병원 ▲서영범(29회) = 10월15일 별세, 일등산병원 ▲차중근(35회) = 10월3일 별세, 부산의료원 ▲오인근(38회) = 8월25일 별세

<어디서 무엇을>과 <부음> 관련 제보, 투고 및 문의는 본부동창회 사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1-245-7551~3

어디서 무엇을... <미국 뉴욕, 뉴저지, 미국 동부 편>

<6회> △김승역 = 방사선 치료전문의, 후러싱에 시니어 데이터센터를 열고 왕성하게 활동 중. 516-627-5568
<7회> △고대준 = 609-275-5955 △김동준 = 718-271-0316 △김요한 = 914-423-5288 △김용수 = 현역으로 플라임 근무 중. 718-225-5341 △전기열 = 848-248-5039
<13회> △권영치 = Paul Jeans & Co., Inc. 운영하며 왕성하게 활동 중. 973-945-7270 youngchi.kwon@gmail.com
<14회> △김광남 = 일반외과 전문의. 은퇴. 410-461-8596/cell. 410-971-6753 kmdg

mom@hotmail.com △김동수 = 신장내과 전문의. 713-647-7844/cell. 832-607-9284 jjangkim@sbcglobal.net △김양영 = 개인사업하다가 은퇴생활 중. 845-827-6470/cell. 201-893-6093 yskimny@aol.com △민발식 = 병리전문의. 은퇴. 315-793-3238/cell. 315-525-1990 balshikm@gmail.com △박기정 = 정신과 전문의. 은퇴. 570-678-7870/cell. 570-417-2209 kjpark@epix.net △박순삼 = 개인사업 505-821-4186/cell. 505-818-7980 sam6008@gmail.com △배광웅 = 개인사업하다가 은퇴. 973-940-2225/cell. 973-809-8767 sbae00@yahoo.co.kr △배영공 = 개인사업하다가 은퇴. 905-731-7452 △배정현 = 방사선과 전문의. 은퇴. 571-261-3919/cell.

<10면에 계속>

매년 한국 찾아 의료봉사하는 재미교포 심재훈 동문(경남중9회)

“노숙자도 돌보고 동기들도 만나니 좋아요”

자비 들여 10년째 한국에 와 의료봉사 한번 오면 두 서너달 머물며 진료

서울 영등포역 앞 요셉의원은 병든 노숙인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무료 진료해주는 병원으로 유명하다. 해마다 이 병원을 찾아와 몇 달 씩 머물며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재미교포인 우리 동문이 있다. 심재훈 동문(경남중 9회)이다.

미국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에서 살고 있는 심 동문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이 병원에서 노숙인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무료 진료를 해왔다. 올해도 그는 요셉의원에서 40일간의 의료봉사를 한 뒤 지난 10월 16일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는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뒤 엑스레이과 의사로 대구 동산기독병원에서 일하다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심 동문은 플로리다주 올랜도 연방교도소에서 의무과장

으로 일하던 중 68세가 되던 2003년 한국의 주간잡지에서 쪽방촌에 대한 르포 기사를 읽고는 충격을 받는다. 그는 직장에 사표를 내고 그해 서울의 요셉의원을 찾았다. 그 후부터 그는 매년 자비를 들여 한국을 찾아와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쪽방촌에서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간한국에서 읽고 의대생 시절 ‘의사가 돼 돈을 벌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겠다’고 다짐하던 생각이 떠올랐지요. 이러다가 의대생 시절 꿈을 못 이루고 내 일만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조바심도 났어요.”

심 동문은 매년 한번 한국에 오면 2,3개월씩, 지난 2005년에는 무려 6개월이나 머물며 의료봉사를 했다.

“노숙인들이란 오후가 돼야 병원으로 찾아오지요. 그래서 내 진료도 오후 1시에 시작해서 밤 9시까지 이어집니다. 하루에 50~70명 정도의 환자를 보지요. 나는 한국



심재훈 동문. 매년 한국을 찾아와 의료봉사를 10년째 하고 있다.

의사들과는 달리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해줍니다. 약처방과 함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을 비교적 상세히 알려주는 편입니다.”

심 동문은 “매년 한국에 와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동기인 김경희 동문을 비롯한 경남중 9회 동기들을 만나니 것도 큰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심 동문 연락처 = 휴대전화 +352-396-5151/이메일 jaeshim@yahoo.com
<박승준 편집위원(27회, 인천대 중어중국어학과 초빙교수)>

<어디서 무엇을... 미국 뉴욕, 뉴저지, 미국 동부편> 계속

703-895-8520 chungbae@comcast.net
△신길승 = 롯데그룹 이사로 재직하다가 은퇴. 571-453-2768/cell. 571-435-2768 gilsongshin@yahoo.com △신원부 = 개인사업하다가 은퇴. 306-979-4668/cell. 306-381-9607 shinwonboo@yahoo.ca △옥길성 = 작곡가. 경희대 교수 은퇴. 202-695-4539 kilsungok@yahoo.com △윤영수 = 개인사업하다가 은퇴. 416-742-1803 ysyoona41@hotmail.com △이광연 = Baylor 대학교 전기컴퓨터 공학과 과장 254-235-3729/cell. 814-574-6375 Kwang_Y_Lee@baylor.edu △이수덕 = 마취전문의. 은퇴. 845-294-5737/cell. 845-820-1501 soodleemc@yahoo.com △이익홍 = 개인사업하다가 은퇴. 905-889-8658 jamesborabora@yahoo.ca △이태영 = 무역업 재정 상담 410-962-8066/cell. 410-963-3351 tailee@ptcintl.com △이현정 = 개인사업하다가 은퇴. 905-760-9925 hunjung_lee@yahoo.ca △장한교 = 일반내과 전문의. 716-688-2927/cell. 716-418-0885 hankyo41@gamil.com △전영성 = 일반외과 전문의. 은퇴. 716-689-9288/cell. 716-359-5037 jys1941@verizon.net △정진기 = 미 연방 에너지부 기계공학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은퇴. 203-664-1149/cell. 203-906-9739 chin.chung@gmail.com △최남천 = 미 연방 노동통계국 경제 담당관 301-570-5470/cell. 240-688-9682 Choe.john@bls.gov △최수길 = 방사선치료 전문의 508-946-0476/cell. 617-571-9435 soochio6@verizon.net △최윤희 = 개인사업하다 은퇴. 808-826-4188/cell. 847-708-4790 yunhanchoi@gmail.com △한수봉 = 정신과 전문의. 은퇴. 703-743-9955/cell. 484-222-1113 hansoobong@

hotmail.com △최의웅 = 산부인과 전문의하다가 은퇴. 863-438-9929 bisada14@yahoo.com
△15회>
△마동명 = 뉴욕 메디컬센터 재활의학과 재직 중. Aging shoot를 목표로 골프에 계속 정진 중. 201-414-4073 kyeunma@yahoo.com △송빈소 = 은퇴하고 골프 입문 1년 만에 90타 돌파, 현재 골프에 푹 빠져 지냄. 215-598-0665
△19회>
△고국환 = right choice realty 운영 중. 718-767-2152 △김대승 = 의사로 일하다가 은퇴. 631-269-9644 △김준은 = 진한식품 대표. 대형 건설프로젝트 준비 중. 201-767-0269 jongwoonkim@gmail.com △박문환 = 개인사업. 골프 싱글핸디캡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음. 516-921-5486 △신정대 = 개인사업. 718-460-1344 △이대수 = 맨해튼 소호에서 사업 번창 중. 718-729-4039 △이동철 = 통아일랜드에서 개인사업 중. 516-757-0275
△20회>
△김형수 = golden plastics, inc. 경영 중. 973-667-4032 henry@goldenplastics.com △한문석 = hahn engineering 경영 중. 516-741-1579 hahnengineering@gmail.com △권복태 = 718-408-9430 boktaekwon@gmail.com △김영철 = 201-768-2289 youngchkim@gmail.com
△21회>
△이상길 = 맨해튼에서 사업. 성업 중. 201-956-2176 △임준형 = 의사. 요즘 틈틈이 낚시에 나가는 재미에 빠져 있다. 201-592-6767
△22회>
△김경모 = 부동산사업. 지역봉사활동과 손녀 보는 재미로 지낸다고. 201-750-0118 △김기공 = NASA 근무. 부인 건강을 위해 함께 시작한 골프에 푹 빠져있다 함. 골프 스윙과 임팩트, 탄도 등에 물리학

적 이론을 접목시켜 놀라운 실력향상을 이뤄냈는데... 글썽. 301-384-5490 gikongkim@yahoo.com △김동환 = 최근 동기를 몰래 살짝 제주도 데 갔다왔는데... 뉴저지 놀우드에 있는 데 저택을 ‘동기들을 위한 하숙집’으로 제공하고 있음. 뉴욕에 오는 동기들은 연락바란다. 201-767-0185 Donkim1123@gmail.com △김치호 = 워싱턴에서 사업 성업 중. 301-428-9699 △송하중 = 맨해튼에서 art song design co. 운영. 등산에 심취. 온갖 백수들의 단체들로부터 회장으로 추대되어 맹활약 중. 212-764-7038 haisong@aol.com △이동진 = 대우자동차 사장을 거쳐 현재 호텔을 경영하며 유유자적하고 있음. 703-916-0744 Donjlee888@yahoo.com △이승익 = 회계사 사무실 운영 중. 201-739-7988 △정대영 = 공학박사, 삼성전자 자문위원 역임. 뉴욕 빙햄턴 대학 연구교수로 재직 중. 607-427-9356 djung@binghamton.edu △최대현 = 쌍거품 수술. 임플란트에 이어 다음단계로 또 무슨 성형수술을 하나 고심 중이라고. 일상이 몹시 분주해 얼굴 보기가 어렵다고. 267-939-5544 dennis@powerlineimports.com
△23회>
△조광호 = concord USA, Inc 운영. ‘침기는 교회’에서 장로로 재직. 201-390-1198 concordusainc@hotmail.com △최예근 = 맨해튼에서 패션사업 중. 516-334-1732
△24회>
24회는 유난히 주재원 출신들이 많은 기수다. 뉴욕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복귀한 박정문 (전 현대정공 뉴욕지점장) 조백인(OCI America 사장), 주재원생활을 하다가 독립해서 미국에서 자리잡은 김도명 (효성), 박해영 (반도), 조정학 (원립) 등이 그들이다.
△김도명 = 컨테이너 수출사업을 크게 하다가 현재 부동산회사 경영 중. 917-

207-5949 Dmkim516@gmail.com △박해영 = 맨해튼에서 개인사업. 성업 중. 뉴욕 일대의 포커노름꾼들과 내기골프꾼들 사이에서 명성이 자자함. 포커든 골프든 한번 붙었다하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다 서 여간 큰 남자자 아니면 슬슬 피한다 서 소문도. 201-370-5524 △조정학 = Alliance NYC 전무, 맨해튼 의류업계의 거목. 347-489-6670 chojugh@fubu.com △임택순 = 자영업. 908-283-4841
△25회>
△김정필 = 자동차 및 상용 엔진 부품을 GM 등에 공급하는 KEI USA 사장. 201-965-7759 jaypkim@keiusa.com
△26회>
△김치갑 = 뉴저지에서 통증의료원 원장. 성업 중. 201-541-1111 cheegap@gmail.com △이선정 = RBS 에서 IT 파트에 근무. 732-580-4361 sunjlee@gmail.com △정인주 = 보안정보회사 경영 중. 718-353-2000 lchung3@nyc.it.com △장대원 = 우즈베키스탄에 공장 운영 중. 201-240-6007 jangwonintl@yahoo.com
△28회>
△최남도 = Andy Choi 회계법인 운영 중. 646-642-7688 namdochoi@yahoo.com △하재선 = 신규 사업 구상 중. 718-213-8397 wih05@hotmail.net
△30회>
△김기홍 = 회계사무실 운영. 718-631-0600 tomkhkim@gmail.com
△31회>
△김태영 = 뉴저지에서 개인사업. 973-777-7282 tkim1121@comcat.net
△32회>
△한창수 = 뉴욕 부루클린에서 개인사업 중. 917-547-9056
△42회>
△김대영 = 맨해튼에서 회계사무실 운영. 347-528-4168 brandenkim@yahoo.com
〈경남중고 재 뉴욕동창회 제공〉

6.25 전몰동문 추모사업 앞장서는 임우근 동문(19회)

“위국헌신하는 엘리트 많이 길러내야 진짜 명문고”

임우근 동문(19회, 한성기업 대표)은 재경동창회 회장을 맡으면서 ‘내가 꼭 해야 할 두 가지’를 마음에 담아왔다. 하나는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숨진 고 이태석 동문(35회, 카톨릭 신부)을 기리는 동상을 세우는 일, 다른 하나는 6.25전쟁 때 나라를 지키다 전몰한 우리 동문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비를 모교 교정에 세우는 일이었다.

그는 이 ‘두 가지 숙제’ 중에서 고 이태석 동문 동상건립은 이미 이뤄졌고 이제 남은 숙제를 마쳐 해내기 위해 지금 준비 중에 있다.

– 추모비는 언제 세울 계획인가.

“가능하면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 고 이태석 동문 동상 제막식을 가진 것이 지난 4월30일이었다. 한 해에 두 가지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너무 서두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어찌 보면 순서가 뒤바뀌었다. 6.25전쟁이 있었던 것이 언제인가. 전몰동문들을 기리는 사업은 진작 했어야 했다. 그동안 동창회가 너무 무심했다.”

– 6.25전쟁 때 전몰한 우리 동문은 몇 명쯤 되나.

“정확한 숫자는 알 길이 없다. 현재 신원이 파악된 전몰 동문은 동창회보가 지난 호에 보도한 대로 10명이다. 당시 주로 4회, 5회, 6회 동문들이 재학 중에 자원입대 형식으로 전장에 나갔고 그 중 일부가 전몰했다. 당시 입대만 동문은 약 3백명 선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숫자도 모른다. 그들은 전선이 대구까지 밀려 더 이상 밀리면 나라가 공산치하로 떨어질 위급한 상황에서 조국을 구하기 위해 입대했다.”

– 고 이태석 동문 동상도, 전몰동문들을 기리는 추모비 건립도 재경동창회가 먼저 제안했고 주도하고 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자는데 본부동창회나 재경이니 따질 게 뭐 있다. 오거돈 회장 등 본부동창회가 두 가지 사업을 모두 찬동하고 적극 협조해주고 있다.”

그가 모교교정에 6.25전쟁 때 산화해간 동문들을 기리는 상징물이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오래 전부터 느껴왔다. 사업 상 일찍부터 외국여행이 잦았던 그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들은 시골 작은 마을에서조차도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전몰한 지역민이나 학교동문들을 추모하는 상징물을 세워두고 해마다 추모식을 갖는 것을 보고 느낌이 많았다는 것이다. 특히 언젠가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임우근 재경동창회 회장.

6.25참전군인 추모공원을 방문했을 때 거기 돌에 새겨져 있는 ‘Freedom is not free’라는 글을 보고 가슴이 울컥했다고 털어놓았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 바친 동문들 우리가 기려야” “6.25 전몰동문 있다는 것은 3부 수장 배출 못지않게 자랑할 일” “후배들이 교내 추모비 앞에서 참배하는 모습 꼭 보고 싶어”

“우리는 모교를 명문고라고 말하는데, 명문고가 무엇인가? 공부 잘하고 야구만 잘 하는 것으로 명문고라고 할 수는 없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국헌신(爲國獻身)하는 투철한 애국심과 굳건한 국가관을 가진 젊은 엘리트들이 많이 길러내는 학교라야 명문고라고 할 수 있다. 후배들에게 애국심과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전몰동문들을 기리는 추모비는 꼭 건립해야 한다.”

그는 영국 이튼스쿨을 예로 들었다. 영국의 상류층 자제들만 입학하는 이튼스쿨의 경우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전사한 졸업생이 2천여명이다. 이튼스쿨을 ‘거대한 무덤’이라고 말할 만큼 이 학교 출신들이 나라와 자유 수호를 위해 숭선수범해서 전쟁에 나갔다. 이튼스쿨을 명문고라고 하는 이유다.

그는 “우리 모교는 대통령, 국회의장을 두 명, 대법원장을 배출한 학교다. 매우 자랑스런 일이다. 그러나 어찌 보면

6.25전쟁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동문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 역시 3부 수장을 배출한 것 못지않게 우리가 자랑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 일부에서는 국립묘지나 부산 어린이대공원 등에 전사한 무명학도병들을 위한 추모비 등이 있는데 굳이 교정에 따로 추모비를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물론 6.25 때 전사한 학도병들을 기리는 추모비는 동작동 국립묘지나 포항 등 여러 전적지에 세워져 있다. 그러나 그런 추모시설들은 막연한 느낌을 줄 뿐이다. 내 형제, 내 고향사람, 내 학교동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구나 하는 실감을 주려면 추모비가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보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더욱 빛나게 된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바친 우리 동문의 애국적 희생을 후배인 우리가 기리지 않으면 누가 기리겠는가.”

임 회장은 덧붙여서 “6.25 때 16개 참전국과 5개 지원국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오늘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설 수 있었겠느냐”며 “한국민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6.25때 참전했다가 희생한 외국 젊은 영웅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호국문화진흥위원회 이사인 그는 4년 전부터 매년 ‘유엔의 날’을 전후해서 용산 전쟁박물관에서 ‘유엔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를 열고 있다.

임 회장은 모교에 세워질 추모비에 대해 “당초에는 총훈탑 건립을 구상했으나 추모 현판 또는 동판(銅板)부조물을 세우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 총훈탑 대신에 동판부조물을 세우기로 한 이유는.
“탑 형식으로 할 경우 규모가 커지게 돼 교정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다. 소박하지만 경건한 마음이 우러나오는 그런 동판부조물을 세우려고 한다. 나지막한 돌 전면에 전몰동문들의 넋을 기리는 문구를 새기고 뒷면에는 신원이 확인된 전몰동문들의 이름을 새길 생각이다.”

그는 건립비용은 일부 뜻 있는 동문들로부터 협찬을 받고 제작에는 전문가 동문들의 도움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교에 세워질 추모비 앞에서 해마다 개교기념일이나 현충일 등에 후배들과 우리 동문들이 꽃이라도 한 송이 바치며 고개 숙여 참배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말했다.



“용마의 영광을 재현합시다.”

용마의 비상(飛上)을
기원합니다.

- 경남중고 제25회 동기회 일동 -



소설가 허택 동문의 <용마 탐구> - ‘끝없는 야구사랑’ 정만오 동문(5회)

“야구는 각본 없는 드라마... 우리 인생도 그런 거지”

올해 필순인 정만오(5회) 동문은 14년 전 야구계에서의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야구에 대한 열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주말이면 벌일 없는 한 야구장을 찾는다.

경남중 때 투수... 황금사자기 3연패의 주역

정 동문은 1945년 경남중(6년제) 3학년 때 야구부에 선발되면서 운명적으로 야구와 만난다. 그 때부터 그의 50여년에 걸친 길고 긴 야구인생은 시작됐다. 16년간의 선수생활(34살 때 까지), 8년간의 감독생활, 11년간의 심판생활(이 중에서 8년간은 감독과 심판을 겸했음), 그리고 15년간의 KBO 공식기록원으로 활동하다가 65세이던 1998년에 야구계에서 은퇴했다.

- 야구로 한 평생 살았네요.

“**(웃으며)** 야구외길로 살아왔지. 내 인생에서 야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야구로 치면 7회나 8회 초 쯤 된다고 할까. 하하”

그는 질문도 하기 전에 경남중 때 황금사자기 3연승에 대한 기억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내 야구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지. 1949년도 제 3회 황금사자기 경기 때였어. 경남중은 1947년부터 2연패하고 그 해 3연패를 노리고 있었는데, 동래고와의 결승전에서 4회까지 장태영이가 투수로 던지면서 지고 있었어. 그때 감독님이 나를 5회에 등판시키더군. 그래서 마운드에 올라가 역전승을 해 황금사자기 3연패의 주역투수가 된 거지.”

그 당시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뻘뻘해오는지 그의 붉은 홍조를 띠었고 목소리조차 떨렸다. 카랑카랑한 말투는 나이를 무색케 했다.

그가 야구선수가 된 것은 경남중 3학년 때 있었던 학년별 야구대회에서 굳게일화처럼 두각을 나타낸 덕분이었다. 바로 야구부 선수로 뽑혔다. 처음에는 포수를 맡았으나 볼 컨트롤이 좋은 것을 눈여겨 본 감독이 투수로 나서게 했다.

투수로서의 활약은 공군에서 복무한 1953년부터 1958년까지 계속 이어졌다. 공군장교로 복무하면서 3군체육대회 때 그가 눈부신 활약을 펼 덕에 공군은 야구전성기를 누리기도 했다.

선수 → 감독 → 심판 → 공식기록원으로 변신 계속

제대 후에는 남선전기(現 한국전력)에 스카웃됐고, 전(全) 부산군 대표투수도 겸하면서 34살 때까지 현역선수로 뛰었다. 그는 오른손 정통파 투수였다. 빠른 공과 타자 몸 쪽에서



50년 넘도록 야구와 함께 지내온 정만오 동문은 야구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풀어 놓았다. 오른쪽은 허택 동문. <사진 - 윤원욱 편집위원(39회)>

뚝 떨어지는 싱커성 변화구가 그의 주무기였다.

- 야구선수 생활을 16년이나 했으면 다른 선수들에 비해 길게 한 건가요?

“길게 한 쉼이지. 나중엔 체력이 달려서 선수생활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겠더군.”

선수생활을 끝낸 그는 감독으로 변신, 야구인생을 이어간다. 부산 대동중, 청주 세광고, 동국대에서 야구부 감독으로 활동했다. 8년간의 야구감독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야구심판으로 무려 11년간 활동하다가 1978년에 심판복을 벗는다.

- 심판생활을 끝내고는 야구와 멀어졌나요?

“심판복을 벗고 나니 좀이 쑤시더라고. 내가 알고 또 좋아하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야구 하나 뿐인데 막상 야구장을 떠나게 되니 뭔가 텅 빈 것 같아 아쉽고 섭섭하더군.”

그래서 그는 ‘프로야구 공식기록원’으로 또 변신한다. 1983년 4월 3일 공식기록원으로 프로야구계임을 첫 기록하기 시작한 그는 1993년 8월 ‘1천 경기 출장기록’을 세워 KBO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환갑의 나이가 넘도록 전국의 야구장을 돌며 매 경기마다 3시간 이상 팽팽한 긴장 속에 기록작업을 해낸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전 문지식과 함께 상당한 체력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최고령 공식기록원이었다.

그는 공식기록원으로서의 기억할만한 사건으로 1984년 5월 5일 방수원(당시 해태)이 세운 ‘노히트 노런’ 기록을 현장에서 기록한 것을 들었다. 또한 최동원, 김시진 투수는 강속구라서 판정하기 힘들 때가 많았단다.

- 야구선수, 감독, 심판, 공식기록원을 다 거쳤는데 그 중에서 어느 시절이 가장 좋았던가요?

“그야 물론 현역으로 뭘 때가 제일 좋았지. 구경하는 것 보다는 직접 뛰는 게 백배 낫지. 나이 들어 직접 뛸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구경꾼이 된 거지.”

경남고 야구부는 안용백 교장 때 생겨

정 동문은 “아직까지도 경남고 야구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어. 동창회에서 신경을 좀 써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경남고(당시에는 경남중)에 야구부가 처음 생긴 것은 **故 안용백 교장** 때였고, 야구부가 전성기를 이뤘던 것은 1회 **故 김근준 동문**이 부산야구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방광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이 하기 싫어서 60대인 주치의에게 팔씨름시합을 걸어 이긴 덕에 수술 대신에 방사선 치료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야구가 그렇게도 좋은 것인가요?

“야구만큼 재미있는 게 또 있나? 적어도 나에게는 야구 이상 가는 게 없어. 야구를 흔히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잖아. 우리 인생도 그런 거지.”

평생을 야구와 함께 살아온 정 동문의 식을 줄 모르는 야구사랑에 질로 머리가 숙여졌다.

<허택(25회, 치과외사겸 소설가)>

“내년에는 더욱더 멋진 대회로 치룹시다!”

제 44회 동창회장기 기별야구대회



장년부 (공동수상)
우 승 : 33회, 34회
준우승 : 27회, 32회

청년부 (공동수상)
우 승 : 41회, 44회
준우승 : 39회, 48회

경남중고등학교 본부동창회 임원 일동

‘부산 요트계 역사의 산 증인’ 조만석 동문(26회)

“노무현, 요트세일 제작공장 차렸다가 돈만 날렸다”

조만석 동문(26회, 한국의양요트협회 부회장은) ‘부산 요트계 역사의 산 증인’이다. 그는 젊은 시절 우연히 요트를 알게 된 뒤 30년 넘게 요트와 끈질긴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먼 바다(外洋)를 항해할 수 있는 크루즈용 요트를 즐기는 요트인들의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의양요트협회’를 창립, 25년째 그 단체를 이끌고 있다.

한국해양소년단 이사 때 요트 처음 배워

- 요트를 처음 탔던 것이 언제인가.

“대학(성균관대 상경대)을 졸업한 뒤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통운회사를 경영하고 있을 때였다. 1979년 한국해양소년단 이사로 참여하면서 요트와 인연을 맺었다. 그 때 광안리에서 1인승 요트인 ‘핀’을 처음 타 봤는데 너무 짜릿했고 재미가 있었다.”

당시 그에게 요트를 알게 해준 이가 고성구 동문(경남중 16회)이었다. 고 동문은 당시 한국해양소년단 부산연맹장으로 있으면서 조 동문을 이 단체의 이사로 끌어들이었다.

당시 한국해양소년단에는 훈련용 요트가 단 한 척도 없었다. 그래서 고 동문과 조 동문은 각기 5백만원씩 내 1인승 요트(핀 클래스) 4척을 제작, 훈련용으로 사용했다. 그게 1980년이였다. 1인승 요트는 확보했으나 제대로 조종할 기술이 없었던 그는 요트조종술을 배우기 위해 부산대 조선공학과 OB들의 요트클럽인 ‘킵’ 클럽회원들을 찾아갔다. 조 동문은 거기서 김학대(13회, 치과의사),故 배용호 동문(경남중 13회, 당시 민락동에서 횡집경영)을 만나 이들에게서 요트조종술을 배웠다.

당시 노무현 변호사와 요트클럽 만들기

-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난 게 그 즈음이었나.

“그렇다. 당시 노무현 변호사는 동아대OB들의 요트클럽에서 요트를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노 변호사가 ‘동아대 OB요트클럽과 부산대OB요트클럽을 합치자’고 제안해왔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오륙도 요트클럽’이었다.”

‘오륙도 요트클럽’의 초대회장은 노무현이 맡았고, 부회장은 김학대, 배용호 동문인, 총무는 조 동문이었다. 회장인 노무현 변호사를 빼고는 임원진이 모두 우리 동문들이었다.

- 노 전 대통령은 요트를 잘 탔었다.

“그 때는 갖 배웠기에 서툴렀다. 그러나 요트에 대한 열정 하나는 정말 대단했다.”

오륙도요트클럽 회장을 맡은 노무현은 자비를 들여 1, 2인승 샤크급 요트 10여척을 만들었다. 그 중 몇 대는 팔기도 했고 나머지는 직접 타거나 회원들에게 빌려주기도 했다. 당시 오륙도요트클럽은 광안리 백사장 한켠에 쇠파이프로 선대(船臺)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요트를 얹어서 보관했다. 이를 본 노무현은 “이래서는 안되겠다”며 광안리해안과 가까운 곳의 나대지 30여평을 월세로 빌려 회원들이 요트와 세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조 동문은 “당시 노 변호사가 회원들을 위해 개인 돈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노무현 변호사가 1982년경 광안리 세광병원 건너편의 한 건물 지하를 빌려 ‘킵 세일’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세일(seil) 제작공장’을 차리기도 했다고 조 동문이 밝혔다. 노 변호사가 자금을 대고 사장은 동아대OB팀의 회원이었던 김 씨 성을 가진 사람을 앉혔다는 것. 특수 미싱기계도 서너대 두고 직원도 4, 5명이나 둔 공장이었다. 조 동문은 “우리나라 최초로 요트세일 제작공장을 차렸다는 사실 하나로도 노무현은 한국의 요트계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고 말할 수 있다. ‘킵세일’이 생기기 전에는 홍콩 등 외국에 가서 세일을 제작해야 했다.”고 말한다.



조만석 동문. 젊었던 시절부터 요트에 빠져 지낸 그는 부산 요트계 역사의 산 증인이다.

‘노무현의 호화요트’는 터무니 없는 이야기

- 노 전 대통령이 일본에 요트조종술을 배우러 갔었다는 이야기는 뭔가.

“영국에서 요트기술을 배워 RYA강사자격증이 있는 이노우에라는 사람이 일본 비야코에서 요트강습을 하고 있었다. 그와 연결돼 1983년 요트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무현 회장과 회원 등 10명이 1주일간 일본에 갔었다. 강습을 받으면서도 노무현은 아주 열심히였다.”

노무현 변호사는 그러나 일본에서 강습을 받고 온 뒤부터 점차 요트에 소홀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노동운동과 인권 변호사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빠졌기 때문이었다. 그가 요트세일제작공장의 문을 닫은 것도 이즈음이었다. 조 동문은 “요트세일 제작공장은 처음부터 장사가 잘 안됐다. 노무현은 세일 제작공장 하다가 돈만 날리고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 노 전 대통령은 한 때 언론으로부터 ‘호화요트를 즐겼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그건 크게 잘못된 보도다. 요트를 취미로 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무현이 탔던 요트는 요즘 해양소년단에 가입한 중고생들도 타는 1, 2인승 덩기급 요트다. 그걸 두고 ‘호화요트’ 운운 했으니 그가 많이 억울했을 것이다.”

크루즈용 요트 직접 제작, 대한해협 항해

조 동문은 1983년 대한해협을 건너는 아리랑 레이스 때 일본 선수들이 몰고 온 대양 항해용 크루즈요트들을 보고는 요트를 제대로 즐기려면 크루즈요트가 있어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당시로는 큰돈이었던 4천여만원을 들여 8인승 크루즈요트인 ‘씨 와이프’호를 그 이듬해 건조하게 된다. 영도에 있던 요트수출회사인 일신조선에서 물드를 구했고 일신조선에서 일하다 나온 기술자 6명을 고용해 요트를 제작했다.

조 동문은 자신이 만든 ‘씨 와이프’호를 타고 일본까지



‘오륙도 요트클럽’ 시절 일본에 요트강습 받으러 갔을 때 찍은 사진. 오른쪽 끝이 노무현 전 대통령, 왼쪽에서 세번째가 조 동문. 가운데 검은 색 옷입은 사람 중 왼쪽이 김학대(13회), 그 옆이故 배용호 동문(13회)이다.

항해한 것이 지금까지 10여차례나 된다. 그는 1987년 12월에는 ‘한국의양요트협회’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요트인구를 늘리는데 힘을 쏟았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곽정철 동문(11회)이 회장을 맡았고 조 동문은 전무이사를 맡았다.

- 요트와 관련,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988년 LA올림픽 때 내가 한국 요트선수대표단의 기수로 태극기를 들고 입장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또 내가 만든 요트에 태극기를 달고 ‘아리랑 레이스’라는 국제요트대회에 한국인 최초로 참가했던 것도 잊지 못할 추억이다.”

조 동문은 오랫동안 요트강습 등으로 요트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애써왔다. 요트 보급을 위해 <우리말 요트 용어집>을 펴내기도 했다. 한 마디로 한국 요트계의 발전을 위해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그에게 “후회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요트에 많은 돈을 날리기는 했으나 일찍 요트를 알았던 것을 행운으로 생각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박승준 동문의 체험 중국 이야기 ④

못 말리는 중국인들의 웨이관(圍觀)... 정치에도 작용



박 승 준

(27회,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초빙교수, 전 조선일보 베이징특파원)

‘웨이관(圍觀)’이란 ‘둘러서서 구경한다’는 말이다. 중국인들은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아무리 바빠도 발걸음을 멈추고 둘러서서 구경하기를 즐긴다. 한국인들도 구경을 좋아하지만 중국인들의 웨이관은 정도가 우리보다 훨씬 심하다.

루쉰, ‘웨이관은 중국인들이 버려야 할 대표적인 악습’ 지적
워낙 인구가 많고 빈둥거리러는 사람이 거리에 넘쳐다보니 그런 것 아니냐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런 면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웨이관은 ‘역사’와 ‘전통’이 깊은, 하나의 고질(痼疾)이다. 오죽하면 현대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문호 루쉰(魯迅)이 웨이관을 “중국인들이 버려야 할 대표적인 민족성의 하나”라고 비판했겠는가.

루쉰은 그의 여러 작품 속에 웨이관을 묘사했다. 소설 ‘축복(祝福)’에서는 아마오(阿毛)라는 인물이 죽어가는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하면서 처음에는 동정하다가, 얼마안가 무덤덤해지고, 나중에는 비웃는 사람까지 나오는 광경을 그리고 있다. 소설 ‘콩이지(孔乙己)’에서도 콩이지가 술집 주인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구경하는 장면이 묘사되었고, 소설 ‘약(藥)’에서도 참수 당하는 장면을 중국인들이 무심한 표정으로 둘러서서 구경하는 광경이 그려져 있다.

웨이관을 즐기는 웨이관러(圍觀人)들은 그냥 구경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둘러서서 구경하면서 각자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다가 서로 큰 소리를 내며 논쟁을 벌이기까지 한다.

천안문사태 때는 애들 손잡고 먹을 것 싸들고 구경나와 중국인들의 웨이관은 중국정치에도 크게 작용해왔다. 1989년 6월에 발생한 천안문(天安門) 사건은 보다 규모가 큰 웨이관 관행의 표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시 천안문 사건 현장에서 수없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광장의 중심부에서 반(反)부패와 민주화 요구의 구호를 외치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당시 광장에 모여든, 1백만이라고 외국 미디어들이 묘사한, 수많은 시민들은 구호를 외치는 시위중군이 아니었다. 한 손으로는 아들, 딸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비닐 봉투 속에 삶은 달걀과 빵과 물병을 넣고 천안문 광장으로 구경나온 웨이관러들이었다.

이들 웨이관러들은 아침이면 광장으로 모여들었고, 해가 지면 귀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낮에는 더우니까 해가 지면 광장으로 나와 밤새도록 광장에서 지내는 사람도 많았다. 이 웨이관러들이 학생들과 중국 정치 지도부 사이에서 환호하거나 박수 치고, 때로는 시위지도부를 비판하기도 함으로써 중국 정치의 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나중에 덩샤오핑을 비롯한 정치 지도부가 실탄을 장전한 총기와 장갑차를 동원해서 시위를 진압한 대상도 주로 시위지도부를 겨냥한 것이었지 웨이관러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인의 웨이관, 중국정치에 ‘민심’으로 작용

시위는 6월 4일 새벽 시위지도부가 노숙을 하고 있던 민영응기념탑에 대한 ‘청소(掃掃)’ 작업으로 시위지도부를

유혈 해산시킴으로써 종결됐다. 시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후야오방 당 총서기의 후임자였던 또 한 사람의 중국공산당 최고 권력자 자오쯔양(趙紫陽) 당 총서기를 직위해제 시키는 결정이 내려졌다. 덩샤오핑을 비롯한 8인의 원로들은 당시 헌법이나 당규약 어디에도 조문(條文)이 없는 ‘민심(民心)’이란 것을 내세워 그런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 그들이 내세운 이 ‘민심’은 아들, 딸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에는 비닐 봉투 속에 삶은 달걀과 빵과 물병을 넣고 천안문 광장으로 구경나온 ‘웨이관러들의 민심’이었다. 중국인의 웨이관이 살아있는 정치적 변수로 작용한 것이었다.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정치에서 웨이관의 영향은 차츰 엿어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중국정치가 헌법과 법률, 그리고 당규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방향, 즉 투명도(透明度)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中全會)는 회의 개최 자체를 비밀로 한 채, 인민해방군 병력이 봉쇄한 베이징(北京) 서쪽의 징시(京西) 빈관에서 열려왔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개최사실 자체를 사전에 미디어에 공개하고, 회의 내용이나 대표들의 분임 토론도 내외신 기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웨이관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의 웨이관 악습은 여전히 쉽게 사라지거나 치유될 그런 병이 아니다.



이것이 ‘웨이관’. 중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한 여학생이 남자 친구를 구한다고 외치자 순식간에 웨이관러들이 모여들었다.



중국인 화가가 표현한 웨이관. 둘러서서 구경하면서도 나름대로 다 이유를 댈 수 있다는 뜻을 그림으로 나타냈다.

필자가 겪은 중국인들의 웨이관

접촉사고 내자 밤중인데도 우르르 모여든 구경꾼들 “얼마 줘야 한다” “아니다, 그것으로는 안된다” 갑론을박

1990년대 초 베이징(北京) 시내 궁티베이루(宮體北路)에서였다.

밤 9시쯤 승용차를 몰고 가로등이 꺼진 어두운 도로의 제일 바깥 차선을 타고 가다가 후미등(後尾燈)이 모두 꺼진 채 정차해있던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살짝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미 어둠이 깊어져서 거의 행인이 보이지 않던 도로에는 어디서든 나왔는지 금방 접촉사고 현장 주위에 수많은 웨이관러(圍觀人)들이 모여들었다.

놀라운 것은 언제 출동했는지 교통경찰도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으나, 사고현장으로 다가오지 않고, 많은 웨이관러들이 둘러서있는 바깥에서 팔짱을 낀 채로 구경만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더 놀라운 점은 웨이관러들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자와 중국인 버스 운전사가 말을 나눌 틈도 없이 사고처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여기저기서 내놓는 것이었다. “승용차 운전자가 버스 운전사에게 800위안은 주어야겠다.” “아니야, 1000위안(약 20만 원)은 줘야 하겠는데...” “600위안이면 되는 거 아닌가?” 한참을 그렇게 떠들더니, 마침내 한 사람이 나서서 다가오더니 “승용

차 운전자가 버스운전사에게 800위안을 주라”고 판결을 내리듯 말했다.

나는 “아니, 왜 제3자가 끼어들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랬더니 웨이관러들 사이에 술렁거림이 일더니 여기저기서 “저 외국인은 성질이 좋지 못한 인간인 거 같다” “저 외국인 때려줘야 하는 거 아냐?”라는 외침소리가 들렸다. 분위기를 보니 800위안을 버스운전사에게 주지 않고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지갑을 꺼내 800위안을 버스운전사에게 건네주고 나니 그제서야 웨이관러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바깥에서 서서 팔짱을 낀 채 바라보고 있던 교통경찰도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오토바이를 타고 가버리는 것이었다. 웨이관러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마치 서양 법정의 배심원들처럼, 사건의 합의 처리의 판결은 물론, 합의금 액수까지 정해주고 흩어진 것이었다.

나는 그제서야 1987년 1월 후야오방(胡耀邦) 당 총서기를 실각하게 만든 중국 정치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남기고 싶은 이야기 / 한 아름다운 여인의 추억 ③

귀국 후 첫 대면... 단 한번 만나고는 사랑 고백

김 병 권

(15회, 미국 뉴저지주 놀우드 거주)

T와 나는 물렛줄에서 실을 뽑아내듯 편지를 주고받았다. 사랑의 감정이 있었기에 그렇게 쉬지 않고 편지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었을까? 아마 우리는 서로가 '구원'인양 동경하고 탐닉하지 않았는지.

물론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을 그어 놓고 그 이상을 침범하지 않았다. 적어도 우리는 '아직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이'가 아닌가.

맨 처음 '국군 아저씨에게'로 시작한 편지는 한 장도 채워지지 않은 간단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한 두어 달 후 우리의 사연은 너댓 장으로 늘어났다. 우리는 조금도 우리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서로를 살짝 보듬고 있었다.

기속사로 불쑥 방문... 상당히 통통한 모습의 그녀

모르거나와 그새 우리는 1톤의 무게만큼 사연을 주고받았다. 그녀의 기속 한 곳에서 일어나는 애절한 설레임과 나의 뒷덜미를 잡는 듯한 그녀의 글귀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침잠을 합한다면 아마 그 무게는 10톤은 족히 되리라.

우리 부대는 그해 8월인가 1개 사단 병력을 싣고 나르는 거대한 미군 수송선으로 부산에 입항했다. 부두에는 가족들과 강제로 동원된 학생들이 나와 우리를 환영해주었다. 나는 군복처럼 그대로 서울의 학교에 들렀다가 바로 대구로 내려갔다.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은 동대구역에서 나는 잠시 회상에 젖었다. 1년 전 유격 훈련을 끝내고 받기차로 월남에 가기 위해 대구를 떠나 서울로 향하면서 나는 숙연했었다.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상념도 잠시, 악을 쓰고 부르는 동료들의 군가에 나도 휩쓸렸고 그 많은 땀과 구보와 사격 훈련을 뒤로하고 떠났었다. 그리고 지금 돌아 왔다.

"보소, 기사 양반, 나를 동산병원까지 데려다 주소"

그녀와의 첫 대면이었다. 나의 갑작스런 방문을 T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기속사에서 자다가 일어났는지 부석부석한 얼굴로 좀 당황해 했다. 그녀는 실낱같은 미소를 보이고는 옷을 갈아입고 나오겠다고 다시 들어갔다.

저 촌스런 모습의 여인이 그처럼 휘이휘이 거리낌 없이 나한테 킁한 사연을 써 보내 왔던 말인가. 저 평범한 모습의 여인이 그처럼 폭포수처럼 사연들을 퍼부어 나를 익사 지경에 까지 몰고 갔던 말인가. 저 여인이 바로 그처럼 아름다운 글로 나에게 경이와 감탄을 자아내게 했던 그녀란 말인가.

옆얼굴 훑어보니 귀티가... 손잡고 대구 돌아다녀

5분 정도 기다리면 나를 줄 앞았는데 그녀는 1시간 정도 걸려서야 나왔다. 진한 남색 투피스를 입었는데 상당히 통통한 모습이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하였다. 이 여인이 나의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어디 한적한 야외로 가자고 했더니 그녀는 버스 차장이 '화원 가요, 화원'이라고 고향치며 버스 차체를 탕탕 두들기는 쪽을 맡았어 가리켰다. 우리는 그걸 타고 종점에서 내렸다. T는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버스차장에게 "막차는 몇시에 있을니꺼"하고 묻는다. 그곳 버스는 시내버스타처럼 자주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우리는 조그만 신등성이에 올라 그냥 앉아서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고즈넉한 시골의 경치가 펼쳐져 있었다. 보리밭과 민둥산 그리고 어쩌다 툇추마리를 지고 가는 농부.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옆얼굴을 훑어보니 귀티가 흘렀다.



일러스트 = 이철원(조선일보 기자)

처음 보는 나에게 긴장하거나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태연자약하였다. 주로 내가 얘기하면 그녀는 대답하는 정도였다.

우리는 꽤 오래 앉아 있었는데 공복을 느껴 막차시간 보다 훨씬 전에 그곳에서 다시 대구 시내로 나왔다. 그날이 마침 추석날이라 레스토랑은 전부 문을 닫아서 우리는 하는 수 없이 중국집으로 갔다. T는 짬뽕을, 나는 짜장면을 시켰다. 우리는 둘 다 기분이 좋아서 대구 중심가를 처음으로 손을 잡고 돌아다녔다.

밤 11시에 그녀를 기속사에 데려다 주면서 나는 호주머니에서 돈 2천원을 꺼내 불쑥 건네주었다. 귀국할 때 받은 봉급과 수당 중 일부였다. 왜 돈을 건네주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T도 조금도 여색하지 않게 당연한 것처럼 그 돈을 받았다.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3백달러 정도 된다고나 할까. 내가 복학 할 때 등록금이 1만2천원이었고 사립학교는 2만2천원 정도 되었으며 버스비는 15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만족한 채로 부산 집으로 내려 왔다. 그때가 1967년 혹은 1968년 이었던가.

사랑고백 편지 보냈더니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이듬해 나는 복학하였다. 그리고 T에게 편지를 썼다. 교정엔 라이카 꽃향기가 그윽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오늘 처음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는 글을 쓰려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난 2여년간 편지로만 나의 생각을 간헐적으로 비쳤지만 오늘은 나의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나는 겁먹은 얼굴을 하고는 당신을 대구에서 한번 보았고 우리는 아무런 언약도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미세하고 가느다란 글귀 하나하나가 보슬비처럼 내려 늘 가슴을 적시고 있습니다. 나는 이 따뜻한 습기의 무게를 더 감당할 수 없어 당신에게 언젠가 얘기하려고 버리고 있었습니까. 그때가 언제인가라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을 사랑

한다고.

나는 당신에게 아무 것도 바라지 않으며,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하든 상관 없습니다. 한 여인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도 나는 그저 기쁠 따름입니다. 또 시장기를 느끼면 먹이를 찾듯이, 외롭고 쓸쓸함이 밀어닥치면 외투 깃을 울리고 바깥을 걸어 볼 것입니다. 혹시 눈발이나 내리지 않나 해서.

그래, 만일 나의 산보에 당신이 동행한다면 나에게 더없는 기쁨과 만족감을 줄 것이며 나의 여정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나 당신은 바빠서 이런 인간의 미묘한 감정 따위는 관심이 없다거나 또 만일 당신이 이미 더 멋진 남자와 교제를 하고 있다고 해도 나는 화를 내거나 질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단 한번 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그 '단 한번'이란 것도 사실 별로 얘기는 하지 못하고 오후에 만나서 버스를 타고 교외에 나갔다가 다시 대구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시내를 걷고 밤 11시에 기속사에 데려다 준 것 뿐이었다.

초조한 마음으로 답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T에게서 편지가 왔다.

'...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입니다. 저 길거리에서 행상하는 아줌마 아저씨, 잠새구이를 파는 포장마차, 심지어 저자 거리에서 샷대질 하며 싸움하는 사람까지 나를 위해 존재 하는 것 같으며 나에게 축복의 메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둥실 날 것 같은 이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아 하느님, 나의 심장의 고동소리 듣고 계시겠지요. 나에게 이렇게 행복한 날이 있으리라고는 짐작 못했는데..'

T는 온 생애를 나에게서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하여 살아 온 것처럼 황홀해했고 계속해서 일주일에 두번 세번 나에게 편지를 보내었다. 나는 그녀가 모든 것을 뺏겨치고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올까봐 겁이 덜컥 났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녀는 정말 아무 사전 연락도 없이 명문동으로 주소한장을 들고 나를 불쑥 찾아왔다.

<다음호에 계속>

다시 보는 부산 ⑩ / 동해남부선

침묵 뱉으며 한밤중 혼자 걷던 추억의 그 바닷가 철길

글/사진 김형운 (18회, 김형운편집회사 대표)

가을밤이었다. 나는 해운대 달맞이고개 아래 철길을 걸었다. 달빛 아래 큰 짐승처럼 앞으로 일렁이는 바다를 곁에 두고 걸었다. 송정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자정을 넘긴 한밤중이어서 사방이 고요했다. 철길 밑, 해안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을 법한데 내 기억 속의 그 밤은 무척 고요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그 철길을 걷고 싶었던 것이 대신동에서 든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해운대에 오고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것은 지금 분명하지 않다. 다만 나는 혼자였고, 술에 취한 것도 아니었으니 대신동에서부터 그 생각을 했을 수 있다. 재수생으로 허구한 날 냄새 나는 독서실에 구겨져 지내던 처지였으니 갑자기 환장하게 그 바다가 보고 싶고, 그 철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은 자연스런 일일 수 있다.

침묵을 뱉으며 걸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바람에 철로변의 풀들이 흔들렸고, 나는 가슴 깊숙이 상쾌한 공기를 마셨다. 나는 달도 보고 풀들도 보고 바다도 보았다. 평화롭게 걸었다.

수학여행 가는 열차 안에서 상이군인들이 쇠갈고리 손으로...

동해남부선, 부산 사람에게서 친근한 철길이다. 내가 이 철길을 따라 처음 여행을 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다. 그때도 가을이었다. 우리는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는 길이었다. 찾간을 가득 채운 아이들은 기분이 들떠 웃고 재잘거렸다. 그러나 어느 순간 아이들은 일제히 온몸이 굳어버렸다. 입을 다물고 허리를 세워 앞만 보며 똑바로 앉았다.

기차가 송정역에 머물렀다가 출발한 때였을까? 한 무리의 상이군인들이 우리 칸으로 점령하듯 들어닥쳤다. 군모(軍帽)에 군복을 입은 그들은 쇠갈고리 손으로 캐러멜을 몇 갑씩 아이들의 무릎 위에 일일이 놓아주었다.

나도 친구들도 잔뜩 얼어서 눈으로 선생님을 찾았다. 찾간 입구 앞에 자리 한 칸을 차지하고 마주 앉은 선생님들 또한 잔뜩 굳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듯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친구들도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우리는 상이군인들의 쇠갈고리 위에 지폐를 암전히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 캐러멜의 단맛에서는 소금이 약간 섞인 듯 짭짤한 맛과 곰팡이 냄새 같은 것이 느껴졌다.

역선 사투리의 아주머니들 열차 분위기 주도

동해남부선이라면 '부산진과 경상북도 포항 사이에 부설된 철도'이다. 길이는 145.8km. 그러나 처음부터 부산진과 포항 사이에 철도가 놓였던 것은 아니다. 1930년 7월에 1차로 부산진에서 해운대까지 18.9km가 개통했고, 이어서 그 해 12월에 좌천까지 41.2km로 늘어났고, 다시 이듬해 12월에 울산까지 모두 73km로 늘어났다. 지금처럼 포항까지 노선이 확장된 것은 1996년의 일이다.

초등학교 수학여행 이후 오랫동안 동해남부선을 잊고 지냈다. 그러다가 다시 추억의 그 기차를 탔던 것은 대학 여름 방학에 친구와 함께 일광에 놀러 갔던 때였다. 1960년대 후반, 그때는 국가의 원호 정책이 작동한 덕택인지 캐러멜갑을 든 상이군인을 찾간에서 만나는 일은 없었다. 대신에 마른 생선이 담긴 함치며 바구니를 이거나 들고 열차에 오른 아주머니들이 찾간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다. 아주머니들은 같은 바닷가 사람인 나도 잘 알아듣기 힘든 사투리로 목청껏 얘기하며 킁킁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은 동해남부선에서 사라진 풍경이다. 동해남부선만이 아니라 나라 안 어느 기차, 어느 버스에서도 볼 수 없는 그리운 옛 풍경이다.



바다에 바짝 붙어 있는 철길이 소나무 숲 사이로 보인다. 저 철길을 한밤중에 혼자 걷다가 검문에 걸렸다.

바다에 바짝 붙어 달리는 그 철길 곧 철거돼

동해남부선은 출발부터 도착까지 바다를 끼고 달린다. 그러나 졸졸 바다를 보며 달리는 것은 아니다. "간간이 바다를 보며 달린다"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해운대역을 출발한 기차가 달맞이고개 아래 미포를 지날 때부터 청사포에 이를 때까지 바다에 바짝 붙어 달리고, 나머지는 바다를 저만치 두고 떨어져서 달린다.

미포에서 청사포까지는 시간으로 5분도 안 되는 짧은 거리이지만 바로 차창 가득히 바다를 보며 열차에 앉아 있는 기분은 근사하다. 그러나 한두 해 뒤에는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없게 된다.

몇 해 전부터 해운대역에서 송정역에 이르는 구간에 거의 직선으로 철길을 새로 까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공사가 끝나는 2013년이 지나면 미포에서 청사포까지의 지금의 철길은 철거된다. 이것은, 더 이상 달맞이고개 아래, 푸른 바다에 눈을 맞추며 기차를 타는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밤바다 보며 걷는데 난데없이 하얀 불빛이...

재수생 시절의 그날 밤 나는 달맞이고개 아래 철길을 따라 적어도 송정까지는 걸어가기로 했다. 호젓한 침묵 길을 달빛이 떨어지는 밤바다를 굽어보며 가을밤의 정취를 혼자서 한껏 누리려고 했다. 그때 그 철길 위에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아니었다. 그럴 만한 대상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시절이었다. 아마 나는 그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다 잊고 걷는 일에만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불만도 없이 걷는 데에만 몰두했던 듯하다.

그런데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저 멀리서 하얀 불빛이 빠른 속도로 내게 다가왔다. 마치 하늘의 별이 떨어져 내 눈앞으로 흘러오는 것 같았다. 저게 뭐지? 나는 마음 설레며 그 눈부신 빛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나는 그날 그 밤에 순찰차처럼 작은 기차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내 눈앞으로 흘러온 그것은 철길 위의 순찰차였다.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나더러 어딜 가느냐고 물었다. 순간



해운대 미포와 청사포 사이의 철길. 단선(單線)인 이 철길은 곧 철거될 예정이다.



송정역사... 송정과 해운대를 잇는 새 직선 철길이 개통되면 이 역사도 기억 속에서만 남게 될 운명이다.

정신병자로 오해받아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나는 송정까지 간다고 했다. 막차를 놓쳐 할 수 없이 걸어간다고 둘러댔던 것 같다. 그들은 철길 위의 보행은 금지된 일이라고 했다. 특히 밤중에 철길을 걷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말해주었다. 그들은 나를 순찰차에 타게 하더니 해운대역까지 데려갔다. 거기까지 가는 시간은 허망하게도 너무 짧았다. 내가 철길 위에서 보냈던 시간은 30분은 더 되었던 것 같은데 그들은 단지 3.4분 만에 그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었다. 그들은 내 삶의 시계를 순식간에 거꾸로 돌려버렸다. 내 젊은 시절의 한 장이 그렇게 덧없이 사라졌다.

/ 禿筆雜記 /

누가 낫작 두껍고 속 검은지를 가려내야

'후흑학(厚黑學)'이란 게 있다. 중국 청말(淸末) 교수였던 이종오(李宗五 1879-1944)가 1911년에 발표한 이론이다. 후흑학의 '후'는 면후(面厚), 즉 낫작이 두껍다는 뜻으로 부끄러움과 염치없는 것을 말한다. '흑'은 심흑(心黑), 즉 뱃속이 숯덩이처럼 검은다는 뜻으로 음흉한 것을 말한다. 이종오는 "중국역사에서 권력을 쥐고 한 시대를 호령했던 인물들은 하나같이 후(厚)하고 흑(黑)했다"며 그 대표적인 인물로 삼국시대의 조조, 유비, 손권을 예로 든다.

조조는 쫓기는 신세로 여백사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된다. 돼지를 잡아 손님을 대접하려고 밤중에 칼을 가는 소리를 들은 조조는 자신을 죽이려는 것으로 의심해 여백사의 가족을 모두 죽인다. 실수를 깨달은 조조는 급히 그 집을 나섰다가 술을 사가지고 오는 여백사를 만나자 그마저도 뒤쫓아가 죽인다. 이에 동행한 진공이 "너무 한 것이 아니냐"고 하자 조조는 "그렇지 않소. 내가 남을 저버릴망정 남으로 하여금 나를 저버리게 할 수는 없소"라고 대답했다.

유비 역시 의리와 지조가 없는 기회주의자였다. 여포에 의지하는가 하면 조조에 붙어있기도 하다가 다시 원소의 품에 안긴다. 유표 쪽에 기울고 끝내는 속적인 손권과 결탁하는 등 동통 부끄러움을 뽐냈다는 것

이다. 이종오는 "유비는 특하면 눈물을 흘려 어려운 고비를 넘기곤 했다"며 "낫작 두껍고 속 검은지는 조조의 쌍벽을 이룬다"고 말한다. 손권은 유비와는 동맹을 맺었을 뿐 아니라 처남 매부지간인데도 촉나라가 쇠퇴한 틈을 타 느닷없이 형주를 빼앗고 유비의 의제인 관우까지 죽인다. 그리고 나서 촉에게 화의를 청하니 후흑학기가 조조 못지않다는 것이다.

이종오는 "수련하기에 따라 아무리 낫작이 두꺼워도 사람들 눈에는 어린애처럼 부드럽게 보이고, 아무리 뱃속이 검은다고 해도 겉은 오히려 희게 보이는 최고의 경지에까지 도달하게 된다"며 "권력을 잡으려는 자는 마땅히 후흑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후흑학은 그러나 알고 보면 '역설적' 인물비평론이다. 낫작 두껍고 속 검은자들이 권력을 쥐게 되는 부조리를 경계한 것이다. 이제 곧 대선이다.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후흑학에 도통한 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후보들이 누구랄 것 없이 다 후흑하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 중에서 누가 털 염치와 부끄러움이 없는지, 또 누가 털 음흉한지를 가려내는 것이 유권자들이 할 일이다. <바우>

■ 포토갤러리



자갈치 옥이집에서 '야간 수업'을 마치고...

따지고 보면, 우리는 경남고를 졸업한 적이 없다. 차림이 교복에서 자유복으로, 교정이 구덕산자락에서 자갈치 옥이집으로 바뀌었을 뿐, 우리 31회 동기들은 39년째 여전히 등교 중이다.

지난 여름 어느날 자갈치 옥이집에서 '야간 수업'을 마친 동기들이 얼큰한 상태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었다. 항상 그랬듯이 그날도 '보충 수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이, 반장, 다음 야간 수업은 언제 어디서 하노?"

<이병태(31회, 외환은행 부산 서면남지점장)>

◇ 이 '포토 갤러리'에 재미있는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실어 드립니다. 보낼 곳 = yongmanews@gmail.com

시산책

내가 몰랐던 일

이 동 순

내가 기운차게
산길을 걸어가는데
저녁밥을 기다리던
수백개의 거미줄이 나도 모르게 부서졌고
때마침 오솔길을 횡단해가던
작은 개미와
메뚜기 투구벌레의 어린것들은
내 구둣발 밑에서 죽어갔다

내가 기운차게
산길을 걸어가는데
방금 지나간 두더지의 땅속 길을 무너뜨려
새끼 두더지로 하여금
방향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었고
사람이 낸 길을 초록으로 다시 쓸어 덮으려는
저 잔가지들의 애타는 손짓을
일없이 꺾어서 무자비하게 부러뜨렸다

내가 기운차게
산길을 걸어가는데
풀잎 대궁에 매달려 아침 햇살에 반짝이던
영롱한 이슬방울의 고고함을
발로 차서 덧없이 떨어뜨리고
산길 한복판에 온몸을 낮게 엮으려

고단한 날개를 말리우던 잠자리의 사색을 깨워서
먼 공중으로 쫓아버렸다

내가 기운차게
산길을 걸어가는데
이처럼 나도 모르게 저지른 불상사는
얼마나 많이도 있었나
생각해보면 한 가지의 즐거움이란
반드시 남의 고통을 디디고서 얻어내는 것
이것도 모르고 나는 산 위에 올라서
마냥 철없이 좋아하기만 했었던 것이다

이동순 = 영남대 교수, 경북대 국문과 및 대학원 졸업, 197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마왕의 잠'으로 등단, 시집 <개뿔> <물 의 노래> <봄의 설법> <가시연꽃> 등 다수.

경남중고동문 불자회(경불회) 창립을 위한 예비모임

일시 : 2012년 11월 23일(금) 오후 6시 장소 : 구도회 법당(부산진역 맞은편 한정신과의원 6층)

불교에 관심이 있는 경남중고등학교 동문들이 모여 "경남중고동문 불자회(경불회)"를 만들어 함께 법문을 듣고 불법을 닦아 동문의 화합과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뜻있는 동문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향후 창립법회는 2013년 1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준비위원장: 정영천(21회)

준비위원 : 월봉스님(6회) 미륵정사, 한동대(9회), 허정스님(12회) 신월정사, 조대무(14회), 진성태(14회), 하영수(17회), 자공스님(22회) 신월정사, 박수갑(23회), 도일스님(28회), 서정환(28회), 박종규(31회), 김법영(33회), 김종만(33회), 이철관(33회), 정영학(33회), 황태윤(37회), 윤원욱(39회), 이원영(39회), 정도연(39회), 이종민(41회)

연락처 : 서정환 010-4857-0573, 김법영 016-554-2655, 정영학 010-4560-1413, 이종민 010-3842-4890

한형조 동문의 古典閑談 ④

삶의 무게 덜어주는 인문학



한형조

(31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인문학은 안경테의 콧잔등에서

흔들리는 ‘유격’ 같은 것...

웬만한 무게는

그 유연함이 감당하고,

붉은 생채기의 자국도

잘 남지 않게 한다.

압력을 분산할 수 있으면

작두 끝에도 올라설 수 있다!”

안경은 테를 고르는 일이 번거롭다. 전에 쓰던 안경을 들고 가 새로 도수를 잴다. 이상한 일이다. 티타늄에서 플라스틱 바뀌었는데, 콧 잔등에 눌린 자국이 없고, 오히려 편안하다. 자세히 살펴보니 거기 코받침에 유격이 있었다. 코의 형태에 맞게 유연하게 흔들리며 압력을 분산시켜 준 것이다.

세상살이, 삶의 무게도 그러할진저. 티타늄처럼 가벼운 무게도 고정된 판에 실리면 덜컥 너무 무겁고, 붉은 상처가 패인다. 그러나 유연한 대응, 낙관적 생각에 실리면 운명의 고난과 고통도 견딜만한 것인지도 모른다. 니체가 말했다. “진정 견딜 수 없는 것은 내가 왜 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지를 모를 때이다.” 이유가 있다면, 의미가 있다면, 그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할 것이다.

다산 정약옹은 나이 마흔에 급전직하, ‘차기 재상감’에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유배신세로 떨어졌다. 처음 간 곳이 경상도 포항 남쪽 바다 장기이다. 이곳은 선배 송시열이 다녀갔던 곳이기도 하다. 차가운 현실 앞에서 그는 자신의 순진함을 탄식한다. “이런, 그토록 세상 불정에 어두웠더니(自笑迂儒闇世情)...”

마당에 참새떼는 울망대는데, 친구들은

찾아오지 않고, 예전 그에게 빌붙던 친척들이 먼저 나서서 사대질이다(不見紅顏多薄命, 由來白眼在親知). “천리마가 내단을 댄 꼬리에 붙은 파리도 잘 나가지만, 고구라친 용은 개미에게 코를 물어뜯긴다네(驪展好看蠅附尾, 龍顛不禁蟻侵鱗).” 그 절망을 그는 어떻게 견뎠을까.

그는 ‘옛 사람들(古人)’을 부른다. 「그들(我思古人行)」 가운데, 1) 공자의 제자 거백옥(鍵伯玉)이 있고, 2) 오랫동안 흉노에 억류되었던 소무(蘇武)가 있고, 3) 불교를 비판하다가 귀양간 한퇴지(韓退之)가 있다. 다산의 흉중에는 이런 생각이 오갔다. 1) 거백옥은 나이 50에 잘못을 깨달았다지만, 나는 이제 겨우 40 아닌가. 그보다는 철이 일찍 든 셈이다. 2) 한 무제때 소무는 사신으로 갔다가, 19년을 풀뿌리를 씹으며 돌아갈 날을 기다렸다. 나는 얼마나 여기 장기에서 울분을 씹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길어야 하겠느냐. 3) 한퇴지는 소신을 피력하다가 8천리 유배를 떠났는데, 나는 겨우 8백리 아닌가. 시곱탈로 잼이 안 된다. 고향은 여기서 겨우 지척인 것...

다산은 그 허방의 세월을 ‘옛 사람들’과 만나면서 견딜 수 있었다. 누구든 그렇다. 즉

물적 한탄에 매몰되지 않고, 나를 위무해 줄 친구, 나아가 ‘거울’이 될 멘토가 필요하다.

감옥의 사상이, 이병주는 5.16 직후, “조국은 없고 신화가 있다”는 글로 필화를 입어 서대문 형무소에 10년형을 받고 수감된 바 있다. 그 차가운 체험이 늦깎이 소설, 『소설, 알렉산드리아』로 태어났다. “지식인은 감옥 속에서 잘 죽지 않는다. 왜? 그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또 하나의 자아로 분리되기 때문이다.” 돌이 있으면 고통은 반감되고, 대화가 시작된다. “지혜라는 것은 동물 육체의 자기를 인도 통제하고, 나쁜 짓을 했을 때는 책망하고, 고통스러운 때는 위무 격려하는 정신적인 자기를 가진다는 것.” 그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수많은 삶과 더불어 있는 ‘풍요(?)’를 누리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인문학은 안경테의 콧잔등에서 흔들리는 ‘유격’ 같은 것임에 틀림 없다. 웬만한 무게는 그 유연함이 감당하고, 붉은 생채기의 자국도 잘 남지 않게 한다. 압력을 분산할 수 있으면 작두 끝에도 올라설 수 있다! 인문학은 삶의 기술(ars vitae)로서, 맨 먼저 배워야 할 기술이지만, 또 한편 맨 나중에 배워야 할 것이기도 하다.

龍馬 醫窓

행려환자 이야기

김법영

(33회, 김&정 해운대병원 원장)



있어 내가 일일이 돌봐야 했다.

시료과 입원실을 3년여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회진을 돌았다. 자나깨나 마주 대고 돌봐야 하는 환자가 행려환자다 보니 자연스럽게 병원에서 ‘행려환자의 대부(代父)’라는 소리도 들었다. 사실 행려환자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환자와 다를 건 없다. 신원을 모르기에 보호자를 찾지 못하는 환자일 뿐이다.

행려환자와의 인연은 이에 앞서 부산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도 있었다. 당시 부산의료원에는 신경외과가 없었기에 간혹 뇌출혈로 수술해야하는 행려환자가 있으면 부산대학병원 신경외과로 데리고 왔기 때문이다. 돌아보니 나는 의사생활을 하면서 다른 의사들에 비해 유독 행려환자를 많이 진료한 편이다. 그 덕에 행려환자에 대한 간단한 논문도 쓴 적도 있고, ‘시료과 환자를 열심히 보는 의사’로 소문이나서 TV에 인터뷰가 나가기도 했다.

최근 부산의료원 신경외과 후배 의사에게 물어보니 전에 비해 노숙자는 늘어났으나 행려환자는 많이 줄었고, 심한 뇌출혈로 오는 행려환자도 별로 없다고 한다. 좋은 현상이다.

군의관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부산의료원에서 신경외과 과장으로 3년쯤 근무한 적이 있다. 당시 부산의료원은 연산동 로타리 부근에 있었고 옛 이름인 ‘시립병원’으로 더 알려져 있었다. 부산의료원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료과(市療科)’라는 병동이 있었다. 행려환자들이 입원하는 병동이다.

‘시료과’라는 명칭은 내과, 외과, 정신과처럼 진료과목에서 따온 것이 아니다. ‘시에서 의료를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당시 부산의료원 시료과에는 보통 1백여명의 행려환자들이 입원해 있었고 보통 매일 3~4명이 퇴원하고 입원했다.

행려환자는 어떤 이유로 거리 등에 쓰러져 있다가 발견돼 경찰에 의해 병원에 실려 온 환자들이다. 쓰러진 사람이 신분증도 없고 계속 의식도 없으면 경찰이 ‘행려환자’로 분류, 시료과로 보낸다. 병원에 실려 온다고 해서 아무나 행려환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경찰이 병원에 와서 서류상 입원절차를 밟아야 정식(?) 행려환자가 된다. 행려환자들의 치료비는 관할 구청 몫이다.

당시 부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행려환자들이 많았다. 부

산이 기후도 좋고 따뜻한데다 철도의 종점이고(기차를 타고 오다가 본인의 질병으로 좌석에서 쓰러져있는 상태로 종착역에서 발견되어 데리고 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 많은 선원들이 입항하여 다음 승선 때까지 머무는 항구도시여서 그런 것으로 이해된다.

행려환자 중에서 하루 이틀 만에 의식이 회복되는 환자는 환자의 신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채 계속 혼수상태로 있는 환자다. 당시 ‘시료과’에 입원하는 환자들 중에서 약30% 정도가 머리를 다친 신경외과 환자였고 이중 뇌출혈의 중한 환자들도

용마 횃집

전망이 좋은 횃집

동문 여러분을 친절하고 저렴하게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표 오 용 환 (31회)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10-48 바다산책빌딩 2층
미월드 놀이동산 앞 수변공원에 위치

예약문의 051)759-7337, 010-3574-5030

용마 세세시

거짓말이 판치는 나라

김 용 원
(28회, 변호사)



최근 북한 병사의 이른바 '노크 귀순'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휴전선 철책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와 우리 군 초소의 문을 노크하고 귀순의사를 밝힐 때까지 우리 군은 북한 병사가 접근해 온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 만약 북한 병사가 수류탄이라도 몇 개 들고 와 초소 안으로 던졌더라면 어쩔 뻔 했나 싶어서 가슴이 찡찡해진다. 도대체 우리 군의 기강이 얼마나 무너져서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길까.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합참의장 등 군 최고 지휘부가 사건 경위에 대해 마구 거짓말을 늘어놓았다는 사실이다. 일개 병사도 아니고 별을 몇 개씩이나 달고 다니는 장군들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두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되풀이 했더니,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나는 직업이 변호사라서 그런지 유독 거짓말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나 혼자 생각이지만, 우리 국민은 거짓말을 너무 쉽게, 또 잘 하는 것 같다. 법정에서 재판할 때면 늘 느끼는 일인데, 이런 재판이 아니라 '거짓말 시합'이 아닌가 싶을 때가 많다. 판사와 검사는 모르고 속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알고도 속아주는 것인지, 하여튼 잘도 속아 넘어간다. 하기가 당사자들이 모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하고, 증인들조차도 거짓말을 해대는 판이니 판검사라고 진실을 알 수 있겠는가.

증인들은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할겠다"고 선서를 한다. 그렇지만 그 선서는 무용지물이다. 증인은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드는데, 제대로 하자면 이 때 판사도 진지한 표정으로 증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오른손을 마주 들여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증인의

거짓말이 조금은 줄어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증인이 선서를 할 때 판사들은 대개 서류를 뒤적거리거나 판 곳을 쳐다보고 있기가 일쑤다.

하기사 법정에서만 거짓말이 난무하는 것도 아니다. TV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뇌물 먹다가 들린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검찰에 불려간다. 혐의가 언론에 보도되면 그들은 일단 거짓말부터 하고 본다. 그러다가 검찰청의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입을 굳게 닫았다가 하루 이틀 뒤에는 영락없이 고소소로 직행이다. 구속되기 전에 했던 말들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러니 국민들이 지도층을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존경은 커녕 불신하고 더 나아가 침을 뱉는 지경이 됐다.

요즘 대선 판을 보면 후보들 주변은 난다긴다 하는 온갖 사람들로 문전성시다. 이 나라의 교수들, 전 현직 정치인, 전직 관료들 등등이 각 후보 주위에서 다 모인 것 아니냐 싶을 정도다. 이런 모습에 나는 벌써부터 은근히 걱정이 앞선다. 저들은 자기들이 마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분명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저러는 것인데, 몇 년 지나면 저들 중에서 몇 명은 틀림없이 뇌물수수로 신문 지상에 이름이 오르내릴 것이다 싶어서다. 그러면 그들은, 그동안 우리가 지겹도록 보아왔던 꼭 그대로, 거짓말을 늘어놓다가 검찰청에 불려가 포토라인에 설 것이다. 이런 애들 말로 '안 봐도 비디오'요, '뻔할 뻔자'다.

이 땅에서 꼬박꼬박 세금내고 살면서 언제쯤이면 그런 꼴을 안 보고 살 수가 있을지... 과연 그런 날이 오기는 올 것인지...

論 評

6.25전몰동문 추모공간 조성에 힘 모아야

뜻 깊은 일... 많은 동문 참여해야 근본취지 살릴 수 있어

6.25전쟁 때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자원입대했던 우리 동문들이 모두 몇 명인지는 지금에 와서 알 길이 없다. 다만 "대충 3백 명 전후일 것"이라는 추측만 있을 뿐이다. 그 참전동문들 중에서 전사한 동문이 몇 명인지는 더욱 미지수다.

본 회보는 '몇 명인지를 모르는 6.25전몰동문들' 중에서 10명의 신원을 최초로 확인, 지난 호 1면에 특종 보도한 바 있다. 이어 이번 호에서는 2명의 전몰동문 신원을 추가로 확인, 보도(1면 참조)했다. 이로써 신원이 확인된 전몰동문은 12명으로 늘어났다.

이제 우리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동문선배들 중에서 최소한 12명에 대해서는 '무명용사'라는 호칭 대신에 그들의 실명을 부를 수 있게 됐다. 그나마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나머지 전몰동문들에 대한 신원 확인작업은 마땅히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12명의 전몰동문들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동창회가 전몰동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추진 중인 추모시설 건립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모교 교정에 세워질 추모시설의 설계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건축가인 승효상 동문(25회)이 맡기로 결정됐다. 그는 본 회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단순히 어떤 오브제를 세운다기 보다는 소박하지만 경건한 분위기의 추모공간을 만들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승 동문은 김해 봉화마을에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설계한 바 있다. 그가 디자인할 추모공간이 앞으로 '경남고의 명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벌써부터 앞선다.

6.25전몰동문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비를 모교 교정에 세우자고 처음 발의한 이는 재경동창회 임우근 회장(19회)이다. 그는 본 회보와의 인터뷰(11면 참조)에서 "공부만 잘하고 야구만 잘한다고 명문고야 아니다. 위국헌신(爲國獻身)하는 투철한 애국심을 가진 엘리트들 많이 배출해야 명문고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백 번, 천 번 맞는 말이다. 영국의 사립고교인 이튼스쿨이 명문고라는 소리를 듣는 배경에는 1,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위해 참전했다가 전사한 동문이 2천명이 넘는 데에도 기인한다.

6.25전몰동문들의 애국심을 기리는 일에 우리 동문들이 관심을 갖고 빠짐없이 참여했으면 한다.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동문들이 앞장 서야 하겠으나 이런 숭고한 사업에는 전 동문이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이 좋고 옳다. 그래야 사업의 근본취지를 살릴 수 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는 아직 모르나 우리 동문들이 십시일반의 정성으로 정성을 모은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본부와 재경동창회가 이 뜻 깊은 사업에 보다 많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편집자에게

"자, 이거 당신이 짤 좋아하는 거"

울산에 다녀 온 집사람이 여행가방에서 이것저것 꺼내 놓다가 "자, 이거, 당신이 짤 좋아하는 거"라며 파란 플라스틱 봉투 하나를 내민다. '경남중고동창회보'다.

나는 탁자 위에 이것저것 내놓은 것들을 뒤로 하고 동창회보만 달랑 들고 얼른 내 방으로 돌아왔다.

"우와, 24페이지나 되네"

첫 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어느 기사 할 것 없이 빼놓지 않고 모조리 다 읽는다. 회보에는 반기운 소식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들어 있다. 모교를 빛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문선배들의 이야기며 가슴 뭉클하게 하는 소식이며...

이제 여기 미안마 생활도 3년차다.

얼마 전 동기인 남진현 군(24회, GHI 대표)이 4박5일 일정(10월16일~20일) 이곳을 다녀갔다.

"우리가 양근에서 만나서 공을 칠 때도 다 있네"

우리는 코스가 완만하고 풍경이 아름답기로 세계적으로 소문난 양근 편 라인 골프코스를 돌면서 사업구상도 하고 아쉬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는 "내년 초에 다시 올게" 하

고 돌아갔다.

박종원 동문(37회)은 여기서 살다가 영구귀국을 했고, 박종현 동문(26회, Seament Myanmar Co. 대표)은 무척 바쁜 모양이다. 하전근 동문(30회, S.H. Shipping Co. 대표)은 가끔 골프장에서 만난다.

요즘 미안마는 하루가 다르게 새 건물들이 들어서고 도로가 포장되어 도시모양이 바뀌어가고 있다. 멋진 외제차들이 늘어나고 비비 웃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미안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에 있는 동기친구들이 자리 잡고 있다.

회보를 볼 때마다 회보제작에 애쓰는 편집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미안마 양근에서, 이석우

(24회 / 연락 = jisukwoo01@gmail.com)

해외거주 동문님들에게

- 동창회보를 인터넷을 통해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 본부동창회 홈페이지를 접속, '동창회보 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 투고 또는 제보를 환영합니다.

보낼 곳 = yongmanews@gmail.com

<편집실>



영업직(구정·추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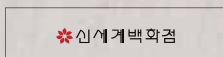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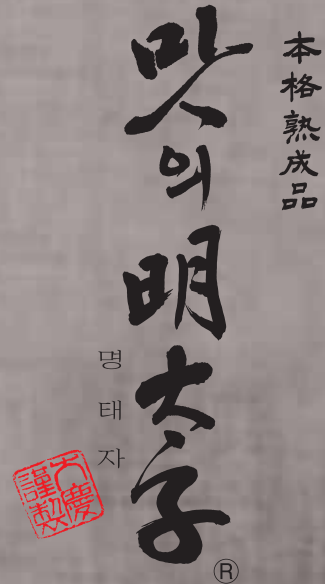
- 경력자 및 공·대기업 임원 은퇴자 환영
- 단기 명절 영업(2개월 x 2회)으로
당신의 일상에 활력을...

담당자 오익희 부사장
 TEL 02-593-6163 / 051-255-7211 / 010-9735-7900
 EMAIL dkfnb.daum.net / www.dkfnb.co.kr

저염명란의 대표브랜드 귀한 분께 좋은 선물로 ‘딱’입니다.

대경에프앤비(주)는 명란제조·판매 전문회사로서
 유명백화점 입점 중이며 자연과 미래를 생각합니다.

21회 강창수 · 54회 강치범



명동본점·강남점·영등포점·경기점
 도곡점(스타슈퍼)·청담점(SSG FOOD MARKET)
 해운대 마린시티점(SSG FOOD MARKET)
 해운대 센텀시티점(추석명절행사)



압구정본점 · 목동점
 무역센터점 · 천호점
 부산점 · 울산점(추석명절행사)



잠실점 · 명동본점 · 강남점
 그 외 수도권 전점 (김포점 제외)



분당점

대경에프앤비(주)

부산본사
 부산시 서구 구덕로 301번길 4
 Tel 051-255-7211~4 Fax 051-253-1500
 서울지점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13 반포쇼펍타운 7동 507호
 Tel 02-593-6163, 6017~8 Fax 02-593-6011
 소비자 상담실 080-052-8881

CASINO

부산파라다이스 카지노
 세브러 카지노

COUNTRY CLUB 프로샵

곤지암 C.C · 레이크우드 C.C · 실크리버 C.C · 파인 크리크 C.C · 골드·코리아 C.C
 뉴서울 C.C · 파인 크리크 C.C · 아시아나 C.C · 우정힐스 C.C

레이크 힐스 용인 C.C · 선산 C.C · 동래 C.C
 레이크 사이드 C.C · 천룡 C.C · 부산 C.C
 하든밸리 C.C · 울산 C.C



www.dkfnb.co.kr